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 학

제65권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Philosophy Vol. 65 No.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

주체108(201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철 학 (루계 제548호)

차 례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회과학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탁월한 사상리론가

박사 부교수 **허광섭**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걸출한 정치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이시였을뿐아니라 인류의 사회과학발전에 특기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를 주체적으로 새롭게 정립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해주심으로써 주체사회과학발전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은 **김일성**민족의 100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사회과학발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사회과학을 건설하신 자주시대 사회과학의 원로이십니다.》

인간의 과학적사고와 함께 시작된 사회과학은 사회적현상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과학이다. 사회과학은 사회정치학, 철학, 경제학, 법률학, 력사학, 문예학 등 많은 분과들을 가지고 발전하여왔지만 오랜 기간 자기의 본성에 맞게 옳바로 정립되고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사회과학은 끝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현상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그런것만큼 사회과학전반에서의 근본적변혁은 시대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기초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사색하고 탐구할줄 아는 출중한 사상가, 과학의 거장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통찰력,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사색력, 명철한 분석력과 비상한 기억력을 천품으로 지니신 불세출의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과학은 자기 발전의 가장 곧바른 진로를 열어나가게 되였으며 민족의 부강번영과 인류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회과학, 주체적인 사회과학으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이룩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의 사회과학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과학, 주체적인 사회과학으로 정립하여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사회력사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이 직접적담당자가 되여 진행하는 인민대중의 운동인것만큼 사회적현상과 그 발전에 대한 탐구의 중심에는 마땅히 사회력사적운동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놓아야 하며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사회적현상들을 보고 대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지 못한 사회과학은 사람,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에 맞게 정립되고 전개될수 없으며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자기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

현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시대, 주체시대이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서 근본적전환이 일어난 력사의 새시대이다. 주체시대는 사회과학분야에서도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과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사회과학으로 정립하고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사회과학이 정립되자면 그것을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탐구할수 있는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로 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부터 마련되여야 한다. 그러한 혁명사상은 수령에 의해서만 창시되게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사회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그자체가 하나의 과학적이며 보편적인 사회과학학설로 되는 동시에 모든 분야의 사회과학이 의거해야 할 사상리론적, 방법론적기초로 된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우리 시대의 참다운 사회과학정립에서 나서는 관건적문제인 자주시대의 참다운 혁명사상의 창시는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가장 빛나게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이 조직동원되여야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의 원리를 발견하시였으며 그것을 일반화하시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놓고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사고하고 실천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할데 대한 사회과학연구의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방법론을 안겨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주체적방법론에 의하여 우리의 사회과학은 그 사명과 임무, 연구원칙들이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되게 되였으며 전개방향과 내용이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규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현 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에서 사회과학의 모든 령역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바로 여기에 인류사회과학이 나아갈 곧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사회과학의 사명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해가 정립되게 되였으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당의 로선과 정책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인민대중에게 인식시키는데 그 임무가 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회과학을 연구하며 모든 사회적현상들을 투철한 계급적안목, 로동계급적원칙에서 보고 대할데 대한 사회과학연구의 원칙적문제들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새롭게 해명되였다.

그리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이민위천의 정치리념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정치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사람, 인민대중중심의 철학이 정립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로부터 출발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현

상과 경제적과정을 탐구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학과 인민대중의 창조의 력사, 투쟁의 력사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적인 력사학 그리고 인민대중의 혁명적세계관형성에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주체적인 문예학 등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적방법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정립체계화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사회과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회과학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마련된 결실인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사회과학을 자기 나라, 자기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주신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어디에 복무하는 과학으로 정립하는가 하는것은 사회과학의 사명과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과학이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자기 나라 혁명에 복무하는 과학으로 연구되고 전개되도록 하시여 주체사회과학과 인류사회과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과학의 연구와 전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는것은 우리 시대 혁명운동발전의 특성과 사회과학자체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요구이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나라와 민족은 오랜 력사적행정에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사회과학의 모든 령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매개 나라의 실정에 맞는 옳바른 사회과학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주체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만 하여도 아직 매개 나라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꾸려지지 못하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유럽의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혁명의 민족부대들이 형성되고 민족적 및 계급적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이 다양하게 벌어짐에 따라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할데 대한 요구가 절박하게 나서게 되였다. 더우기 이 문제는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의 경우에 더욱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제국주의자들이 주입한 노예적굴종사상은 식민지, 반식민지나라 인민들의 자주정신을 좀먹고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뿌리깊이 남아있게 하였으며 특히는 자기의 민족적리익을 국제주의의 보자기로 감싸고 타민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내의 일부 그릇된 처사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서의 주체확립문제는 혁명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존망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

천리혜안의 예지로 도래하는 새시대의 요구와 혁명운동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과학을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애국애족적인 과학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립장을 천명하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며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가르치시면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여기시고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였다.

항일대전의 나날부터 주체확립문제를 조선혁명의 생명선으로 여기시고 항일무장투쟁과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추호의 타협도 없이 주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사람들의 사상의식분야에서의 주체확립을 더는 미룰수 없는 관건적인 문제로 보시고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중앙당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에서는 쏘련당의 력사에 대하여서는 가르치면서도 우리 당력사에 대하여서는 외면하고있었으며 세계력사과목에는 많은 시간을 할당하면서도 조선력사과목에는 극히 적은 시간밖에 할당하지 않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림을 걸어놓아도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아니라 씨비리의 초원을 묘사한 그림을 걸어놓았으며 지어 교과서를 편찬하는데서도 남의 교과서를 그대로 옮겨놓다보니 우리 나라의 지리적위치를 사실과는 정반대로 서술하는 폐단도 생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44(1955)년 12월 28일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주체는 조선혁명이며 우리의 모든 사상사업은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는것을 선언하시여 우리의 사회과학을 명실공히 자기 나라 혁명, 조선혁명에 복무하는 주체적인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근본지침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음식을 씹어보고 속에서 받으면 넘기고 받지 않으면 뱉아버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성의 명제나 공식, 남의 경험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창조적으로 대하시였으며 그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회과학리론을 전개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과학자들과 자리를 같이하실 때마다 우리는 조선땅에서 산다, 우리는 우리 당의 사상, 우리 당의 리론으로 살며 또 살것이다, 사대주의나 교조주의는 우리와는 인연이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복무하고 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을 연구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립장은 기성리론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새롭게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리론, 인민정권건설리론과 사회주의농업협동화리론을 비롯한 정치학, 철학과 경제학의 발전력사에 뜨겁게 깃들어있으며 조선사람의 기원과 고조선문제를 비롯한 지난날 력사의 이끼속에 파묻혔던 많은 력사적사실들이 해명되여 우리의 력사학을 조선혁명수행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게 이끌어주신 주체적인 력사학령도사에도 깃들어있다.

우리 사회과학의 주체적대를 바로세우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우리의 모든 승리와 성과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투쟁한 결과라는것을 확고히 인식하게 되였다. 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고 우리 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모든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주체적인 연구방향과 원칙이 사회과학전반에 확고히 수립되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사회과학을 자기 나라, 자기 혁명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가장 애국적이며 애족적인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주신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다.

인류가 낳은 천재적인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직접 령도하시는 나날에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인류의 사회과학발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백과전서적인 수많은 진리들을 내놓으시였다.

사회과학의 세부적인 모든 분야까지 다 포괄하고 그 체계성, 심오성, 론리성에 있어서 특출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은 인류사회과학발전의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보들이다.

실천은 리론발전의 추동력이며 진리의 기준이다. 사회과학의 모든 리론은 사회적실천속에서 나오고 실천속에서 검증된것이라야 인간의 운명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리로, 지침으로 되게 된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혁명실천과 동떨어져 공리공담을 일삼는 현상에 대하여 경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과학발전을 위한 모든 사상리론활동을 철두철미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벌려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활동의 무대는 아늑한 서재나 도서관이 아니라 온갖 계급적원쑤들과 기회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정치사상적, 군사적대결장들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마당이였으며 사상리론활동의 내용들은 리론적사고과정에 착상된 사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거창하고도 준엄한 혁명투쟁이 제기하는 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준 내용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탐구와 사색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에 해답을 주기 위한 사상리론활동을 벌려오시였으며 이 과정에 인민대중의 운명개척, 자주위업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사회과학의 심오한 원리와 내용들을 수많이 내놓으시였다.

1920년대 중엽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진사상의 탐구를 그 어떤 학구적취미나 탐구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혁명이라는 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진행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상리론활동을 벌려오신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인류해방투쟁의 선행한 단계에 비할바없이 폭넓고 심각한 사회적변혁을 동반하였다.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은 그 하나하나가 치렬하고 복잡한 투쟁과정인 동시에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투쟁이였다. 그런것만큼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요구 역시 선행한 시대에서는 제기되지 않았고 또 제기될수도 없었던 생소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이였으며 그것도 어느 한두분야에서가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잡하고 간고한 우리 시대의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인류사회과학이 아직까지 알지 못하였던 독창적인 원리와 내용들을 발견하고 심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에 관한 문제를 놓고 여러 나라에서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우왕좌왕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로작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상품생산에 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분화되여있고 분업이 있는 조건에서

필연적으로 상품화폐관계가 존재하게 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의 상품화폐관계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는것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적소유의 기업소들사이에 거래되는 생산물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적형태를 띠며 따라서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치형태를 가지게 된다는것, 여기에서는 가치법칙이 내용적으로 작용하는것이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하며 사회주의국가는 가치법칙을 형태적으로 리용해야 한다는것을 철의 론리로 전개하시였다.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천명하신 경제학의 원리와 사상들은 그후 주체의 정치경제학정립의 가장 옳바른 리론적기초의 하나로 되여 주체사회과학발전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수많은 로작들에는 사회정치학, 철학, 력사학, 법률학, 문예학, 교육학 등 인류의 사회과학의 모든 령역들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오는 심오하면서도 다방면적인 진리들이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밝힌 혁명적인 철학리론들도 있으며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와 넓은 식견으로 찾아주신 우리 민족사의 기본줄기에 관한 귀중한 지침들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치와 인민정권에 관한 리론, 우리의 사회주의법을 그 계급적성격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하고 완성할데 대한 사상,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과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을데 대한 문예창작방법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교육의 본질과 사명,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원칙에 관한 사상 등 말그대로 백과전서적인 진리들이 밝혀져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특출한 탐구력과 창조적사색력, 비범한 통찰력과 명철한 분석력, 비상한 기억력과 한없이 넓은 지식, 뛰여난 저술력을 지니신 인류의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기를 밝히시고 인류사회과학발전의 정로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인류력사를 자주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20세기를 위대한 세기적변혁과 창조로 찬란히 수놓아오시였다.

주체사회과학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걸출한 사상리론적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였다.

희세의 철학가, 사상리론의 대가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과학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하시는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주체적사회과학건설의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발표하신 로작들은 물론 당과 국가, 무력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나날에 발표하신 수많은 불멸의 저서들은 주체사회과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우리의 사회과학을 명실공히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사회과학,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 강령적지침들이다.

오늘 주체사회과학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최상의 경지에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는것을 자신의 어길수 없는 사명으로 여기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풀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는것을 주체사회과학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원칙, 총적방향으로 규정해주시고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불후의 고전적로작《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주체사회과학발전의 강령적지침, 불멸의 대강이다.

참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주체사회과학발전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그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래일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실마리어 사상리론가, 주체사회과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정치강령

박사 부교수 **홍 혜 명**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만난시련을 과감히 헤치며 우리 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는 력사적인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는 현시기 우리 혁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앞길에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합니다.》

정치강령은 정당, 단체 또는 국가나 정부 등이 자기의 정치활동에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지도사상과 투쟁목적, 정치적과업 등을 집약적으로 밝히고있는 강령이다.

정당, 단체들은 자기의 투쟁목적과 과업을 밝힌 강령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옳은 투쟁목적과 과업이 밝혀진 강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대중이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주며 그들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한다.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고있는 시기에 발표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임무와 투쟁과업을 뚜렷이 밝힌 강령적지침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정치강령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시정연설에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목표와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있기때문이다.

국가건설의 총적목표와 그 실현의 원칙들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은 국가건설과 활동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총적목표와 그 실현의 원칙들이 정확히 규정되여야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국가건설과 활동을 목적지향성있게 성과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이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념원대로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투쟁해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나라,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철의 론리와 과학적인 분석으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시정연설은 우리 혁명의 구체적인 환경과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향하여 곧바로 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국가건설사상과 원칙을 뚜렷이 명시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정치강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시정연설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있기때문이다.

현시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히 규정하는것은 조성된 혁명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우리가 잘살고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우리 혁명의 발전행로와

복잡한 국제정치정세흐름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혁명정세가 엄혹하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자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승리에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방식, 견결한 투쟁방식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이룩한 모든 자랑찬 승리와 기적적인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굴함없는 공격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을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시였으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개화발전시키며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현 단계에서 나서는 투쟁과업과 방도들이 명확히 밝혀짐으로써 온갖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을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리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수 있는 고귀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에게는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선진수준에로 도약할수 있는 자립적발전능력과 든든한 기반이 있다. 우리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십년간 다져온 자립경제의 토대가 있고 능력있는 과학기술력량이 준비되여있으며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애국의 열의로 피끓는 영웅적인 우리 인민이 있고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점령못할 요새, 뚫지 못할 난관이 있을수 없다.

참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은 전체 인민을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자력으로 부강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고무추동하는 위대한 정치강령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이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정치강령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시정연설에 북남관계의 지속적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져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당과 국가의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최대의 숙망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이며 세계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는 국제정치의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주동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력사적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여러차례에 걸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북남선언들이 채택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거족적인 운동으로 전환되였고 력사상 처음으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졌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철저히 리행되여 조선반도의 평화적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들은 북남합의리행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들을 로골화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의 지속적발전과 우리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북남선언들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하며 민족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근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침해하는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킬데 대하여서와 적대적인 내외반통일, 반평화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시정연설에서 북남관계, 조미관계개선의 원칙적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옳바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북과 남이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시정연설은 조국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는데서 우리 민족모두가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오늘 우리의 투쟁목표는 방대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에는 의연히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안겨주신 투쟁의 기치, 강령적지침을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만난시련을 제힘으로 이겨내며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닌 우리 인민의 도도한 진군은 그 무엇으로써도 돌려세우거나 멈춰세울수 없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있는 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총매진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시정연설, 정치강령, 투쟁목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교수 박사 **박 혜 숙**

1. 서 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리론을 깊이있게 해설하는것은 당의 령도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떨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당, 전민이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휘황한 전도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도록 하자는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 주되는 목적과 의의가 있다.

지난 시기에는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사회주의강국건설리론,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된것으로 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해설하는데서 그 전제로 될수 있는 적지 않은 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난 시기의 글들을 보면 우리 민족제일주의에 관한 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한 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에 관한 사상, 국력과 그 요소, 역할에 관한 사상,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사상들이 해설되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최근에 밝히신 사상으로서 이 사상을 해설한 글들은 소론문형식으로 일부 출판되였다.

본 론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해설론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집필하였다.

2. 본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중대한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선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의 기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은 그 본질과 사상적기초, 중요내용 그리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고있다.

2.1.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에 관한 사상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이 명확히 해명되여야 그 전반내용을 깊이 파악할수 있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과업과 방도를 과학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에는 공화국의 자랑찬 력사와 현실을 열렬히 긍정하고 창창한 미래를 확신하는 애국정신이 응축되여있고 강국건설의 원대한 포부와 리상이 담겨져있다.

2.1.1.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의 한 측면을 이룬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무엇보다먼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다.

우리 공화국은 절세의 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가장 긍지높은 국가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수령이 위대한 국가를 일떠세운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수 있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국가의 강대성과 우월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라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70년사가 확증한 철의 진리이다.

우리 국가의 지정학적위치나 령토의 크기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지만 우리 조국의 지위는 걸출한 수령들을 모시여 어제날의 약소국으로부터 세계적인 강국에로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력사와 현실은 국가의 강대성과 우월성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바로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가 모시지 못하는가에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에게 빼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진정한 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불패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

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고수하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일어난 세계의 대정치동란속에서 우리 국가가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은것은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안아오실수 있은 세기적인 기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수호하신 우리 공화국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력사상 있어본적이 없는 민족만대의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비범한 령도력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면에서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을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수령의 위대성은 곧 국가의 강대성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수령이 위대하면 작은 나라도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설수 있다는것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어제와 오늘이 가르쳐주는 고귀한 진리이다.

불세출의 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최대의 행운이고 특전이며 우리 인민만이 간직할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지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지도사상은 국가의 강대성과 우월성을 규정하는 중요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건설은 일정한 사상 또는 리념에 기초한다. 국가의 지도사상은 국가정치실현의 원리와 원칙, 방도를 제시하는 체계화된 정치사상, 정치철학이다. 그러므로 지도사상은 국가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과 활동방식을 규제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우리 국가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정확한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작성의 원리적 및 방법론적기초를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다.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국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공화국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우리 공화국이 국가건설의 초창기부터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전력사적기간 제국주의침략세력과의 첨예한 대결속에서 류례없는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승리해올수 있은것은 바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따라 자주와 사회주의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데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고 투쟁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은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하며 무진막강한 국력을 지닌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올라 온 세상에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은 다음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강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당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강국이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위대한 승리와 기적만을 안아온 우리 국가의 무한대한 힘의 비결은 일심단결에 있다.

민족사에 특기할 대장거, 대사변들도 일심단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천지개벽을 불러오는 창조와 변혁도 일심단결이 안아온것이며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에서 이룩한 력사적승리도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단결력의 응당한 결실이다. 령도자를 중심으로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바로 여기에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비결이 있고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보다 휘황찬란할 래일이 있다.

일심단결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상징이며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힘이다.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불패성의 담보이다.

세상에는 국가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전체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령도자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국가는 오직 우리 국가뿐이다.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며 수소탄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인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이런 국가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은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다.

2.1.2.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의 다른 한 측면을 이룬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단순히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에만 귀착되는것이 아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워 우리 식 사회주의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려는 강렬한 의지력을 발휘하게 하는 사상감정이다.

국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다. 정치사상적힘과 군사력, 경제력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력의 기본요소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국력의 기본요소인 강력한 정치사상적힘과 군사력, 경제력을 가진 긍지와 자부심이며 그것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는 무엇보다먼저 국력에서 기본인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천백배로 높이려는 의지이다.

강국의 첫째가는 징표는 정치사상강국이며 정치사상적위력은 국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정치사상강국의 본질은 일심단결이다.

경제에 힘을 넣어 일정하게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추고 군사에 모든것을 집중하여 군사적잠재력을 원만히 갖출수는 있지만 나라안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굳게 뭉친 정치사상강국으로 되는것은 바란다고 하여 그 어느 나라나 이룰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지구상에는 경제대국, 군사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온 나라, 온 민족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위력한 단결을 이룩한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 인민이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힘을 천백배로 높이려는

강렬한 의지를 지닌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인민이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일심단결의 사상으로 살고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적대세력들과 맞서 승리를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은 령도자를 그리워하는 혼연일체는 정치사상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전통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모든 기적과 비약들은 다 우리 인민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발휘한 충정심의 고귀하고도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타번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의 열도는 그대로 비약과 혁신의 불길로 타번지고 그 불길들이 펴져 우리 조국의 밝은 앞날이 펼쳐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을 원천으로 하여 우리 조국은 수령과 인민이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룩한 하나의 운명공동체, 가장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세계만방에 존엄떨치고있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는 다음으로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려는 의지이다.

강위력한 군력을 갖춘 군사강국은 강국의 기본징표를 이룬다.

사회주의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우리 조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침략책동이 악랄하게 벌어지는 조건에서 군력강화는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총대를 강화하는것은 자위적인 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바로 그 총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총대로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는 강위력한 국가를 일떠세우고 수호하려는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강렬한 의지이다.

우리 나라가 예로부터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그 짬에서 렬강들의 리해관계의 초점이 되여 각축전의 칼도마우에 오른 비참한 신세로 되였던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담보해줄 강력한 군사적힘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이런 피의 교훈이 있어 최강의 군력으로 적대세력들에게 패배만을 안기는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필수적인 사상감정으로, 의지로 되였다.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은 곧 힘의 대결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약하면 적대세력들의 발굽밑에 짓밟히고 강자들의 롱락물로 되고만다. 막강한 군력우에 평화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

조선반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며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이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엇갈려있고 방대한 군사력이 집중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번져지고 그 피해는 전지구적인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들이 밀려가고 핵전쟁으로 치닫던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들이 평정되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굳건히 수호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있기때문이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는 다음으로 이 땅우에 기어이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의지이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은 오늘 우리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강렬한 의지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경제강국의 지위에까지 확고히 올라서야 명실공히 사회주의강국이 된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다시말하여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 지식경제가 확고히 건설된 나라이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워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다.

당의 로선을 관철하는 직접적담당자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장구한 기간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자기 위업에 대한 승리를 굳게 믿고 오직 당을 따라 한길을 걸어왔으며 우리 당은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가는 충직한 인민,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는 강의한 우리 인민을 믿고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새로운 전략적로선들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는것으로 하여 그 승리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불굴의 정신력을 지닌 인민이 발휘하는 힘에는 한계가 없다. 당이 결심하면 천만시련이 가로놓여도 무조건 해내고야마는것이 우리 인민의 창조본때이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을 돌파하며 과학과 기술로 비약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개척자, 선도자이다.

당에서 품들여 키워낸 우리의 과학기술력량이 있고 첨단과학연구보급기지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오늘의 현실적조건은 경제강국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 나라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속에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적극 추진되여 자립경제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가 강화되고 중요부문들에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이 갖추어졌으며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개선되였다. 특히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속에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이 높아졌다. 우리의 공업은 첨단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도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을 들여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는 인민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 사회주의락원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며 그 의지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지닌 인민대중과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진영이 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주신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는 배심을 가지고 이 땅우에 기어이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 있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를 지닌 인민대중에 의하여 혁명의 전진속도가 비상히 강화되고 나라의 종합적국력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며 이 땅우에는 강국의 존엄과 위상이 나래치는 인민의 리상사회가 일떠서게 될것이다.

2.2.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에 관한 사상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를 옳바로 밝혀야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으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공화국이 수세기를 도약하여 자주의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솟구쳐오를수 있게 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입니다.》

부강조국건설은 특정한 계층이나 사회적집단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수행해야 하는 전인민적인 애국위업이다. 이러한 위업을 이룩해나가자면 전민을 공감시키고 묶어세울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하며 숭고한 애국정신이 세차게 나래쳐야 한다.

2.2.1.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의 하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는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고 발양되는 사상감정과 의지라는것을 의미한다.

사상감정과 의지의 진실성과 생명력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상의 과학성에 의하여 담보되게 된다. 과학적인 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사상감정과 의지는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공고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지만 비과학적인 사상,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상에 기초하는 사상감정과 의지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게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서 그 과학성이 검증된 우리 국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국가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가지고있기에 가혹한 환경과 조건속에서도 자기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우리 국가의 위대성은 곧 주체사상의 위대성이며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사상적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과정에 형성되고 발양되게 된다.

주체사상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로 되는것은 우선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이기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인민을 떠나서 존재할수 없다. 인민의 규탄을 받는 국가, 인민을 천시하고 착취하는 국가는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그러한 국가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부정적이기마련이다.

우리 국가는 인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구현되여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사상감정, 우리 국가의 위력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의지의 바탕에는 인민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의 태도를 밝혀주는 사상이 놓여있다.

주체사상은 곧 이민위천의 사상이며 모든 체계와 내용들이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으며 인민의 운명을 구원할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을 벌려나가시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지니시고 주체사상을 명실공히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주체사상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인민대중의 활동을 사회발전의 가장 위력한 요인으로 내세우는 원리들을 비롯하여 인민의 요구와 지향, 그들의 투쟁경험을 반영한 원리와 원칙들을 풍부히 전개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의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사상에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이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근본핵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며 최고정화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주체사상이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라는것은 결국 우리 당이 밝힌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원리와 원칙들로 체계화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나라, 인민이 주인이 되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으로 발현되게 된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체득하면 우리 국가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할수 있으며 온갖 원쑤들의 침입으로부터 인민의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조국을 옹호고수하고 그 위력을 더욱 높여 반드시 인민들의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발휘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이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철저한 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있는 혁명사상이기때문이다.

국가의 존재와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자주성이다. 자주성이 결여된 국가, 자주적대와 힘이 약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는 국가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이러한 국가에 대한 사상감정도 부정적이기마련이다.

오늘 지구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적지 않은 국가들이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인한 비굴한 운명을 강요당하거나 자주권을 지킬 힘이 없어 지배와 간섭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러한 국가의 인민들이 자기 국가가 제일이라는 사상감정을 가질수 없다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오늘날 세계의 곳곳에서 펼쳐지고있는 피난민행렬의 비참한 모습은 국가에 있어서 자주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자기 식대로 풀어나가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당당히 과시해나가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국가는 비록 크지 않지만 자주적대를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생명선으로 내세우고 자기의 자주권을 지킬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높여나가고있는 자주의 강국이다.

우리 국가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우리 국가의 위력을 높이 떨치려는 의지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현해가는 옳바른 방도를 밝혀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의 원리들과 원칙들로 일관되여있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사회적인간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내세우고 자주성실현의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사상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모든 원리와 원칙들은 투철한 자주정신으로 일관된 원리와 원칙들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자주성을 지키고 실현하는 길에서 우리 공화국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업적, 그것으로 하여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높은 권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서 이것은 자주가 력사의 정의이며 혁명의 승리라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밝혀준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도 역시 강한 민족적자존심,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사회주의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흘러나오게 된다.

2.2.2. **김정일**애국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의 다른 하나는 **김정일**애국주의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받들어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울수 있게 하는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며 가장 위력한 추동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소중히 간직하시고 실천활동에 구현해오신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감정은 바로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

동력으로 그 거대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조국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지니게 하는 사상감정이기때문이다.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문제는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공감하는 사상감정과 직접 련관된다. 자기의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것을 적극 내세울수 없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만이 자기의것을 떳떳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사상감정을 지닐수 있는것처럼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도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의 귀중함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의 결정체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조국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사랑의 열도는 그것이 가지는 귀중함정도에 의하여 규정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삶의 요람이라는 철리를 밝혀주고있다.

일찌기 조국은 단순히 사람들이 나서 자라난 나라나 고향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는 나라, 수령의 품이라는 독창적인 조국관을 정립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자기의 생명보다 조국의 운명을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의 운명에 자기의 운명을 일치시키며 조국의 부강번영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여기에 **김정일**애국주의가 담고있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가장 열렬하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조국은 바로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수령의 품이며 그것은 주체사상의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세상에 자기 조국에 대한 긍지, 높은 존엄에 대하여 바라지 않는 인민은 없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긍지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조국에 대한 가장 숭고한 애국의 정신이야말로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바로 조국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인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오늘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소중히 간직할수 있는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헌신하려는 사상감정이기때문이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는 헌신을 전제로 한다.

국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고 존엄이며 생존권이다. 국력이 강해야 조국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다. 그러므로 국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생존권을 위한 근본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이며 바로 이 사업이야말로 가장 큰 애국으로 된다.

김정일애국주의는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우리 조국을 강위력한 국력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만들려는 애국주의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가장 뜨겁고도 열렬히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의 한없이 숭고한 귀감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해나갈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더욱 북돋아주고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게 하는 숭고한 귀감으로, 가장 빛나는 실천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비할바없이 위력한 국력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같은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충만된 **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 우리 조국을 사회주의강국으로 세계우에 그 존엄과 위상을 높이 떨칠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초로 되고있다.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숭고한 사업은 인민대중의 애국적헌신성에 떠받들려 추진되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끝없는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면서 참된 애국의 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의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서 떨쳐나갈 높은 각오와 의지를 지니도록 하는것으로 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기초로 된다.

2.3.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내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은 부강하고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근본적이며 중핵적인 과제를 훌륭히 해결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국가실체입니다.》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을 견줄만 한 나라는 없다.

공화국이 70년의 장구한 기간에 이룩한 괄목할 성과들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

2.3.1.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이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며 인민이 주인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국가는 없다.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지만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과 후대들의 미래까지 전적으로 의탁하는 국가로는 되지 못하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담보될뿐아니라 이민위천의 리념과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이 구현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우리

공화국이다.

인민을 가장 신성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떠받들며 철저히 보호하고 보살펴주는것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제일가는 본분이다. 우리 국가의 모든 정책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되고있으며 정권기관들의 활동은 인민들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진행되고있다.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 교육제도를 일관하게 고수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높은 목표를 내세운것은 우리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우에 군림하여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특권행위가 추호도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회주의사회가 과도적인 사회인것만큼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이 일부 나타날수도 있지만 참다운 인민관, 인민철학이 사회생활전반을 지배하고있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집권당과 인민정권의 존재방식으로 되고있기때문에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인민적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부자들의 치부와 향락에 도용되거나 돈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민의 존엄을 짓밟는것과 같은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사회풍조가 도저히 생겨날수 없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공화국정권이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키며 가사보다 국사를 더 중히 여기고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이런 나라야말로 그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수 없는 위대한 나라, 불패의 강국이다.

2.3.2.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

우리 공화국은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법에 기초하여 존재하지만 가장 리상적인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일심일체를 이룬 나라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 국가가 출현한 이래 어느 나라도 전사회적인 사상적일치에 대하여 제기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만민을 공감시키고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는 우월한 사상과 정치가 없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심으로 하여 인류사상사에서 최고봉을 이루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사상을 국가정치리념으로 가지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발전행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정치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에 구현하여온 력사이며 그것이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와 인생관으로 전환되여온 과정이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의 조국일뿐아니라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속에서 거대한 변혁을 이룩한 세계에 유일무이한 사상강국이다.

력사적으로 사대와 교조가 깊숙이 뿌리박혀있고 대국주의, 수정주의자들의 간섭책동이 우심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사상적일색화를 제기하고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것은 기적이 아닐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새 사회건설과정에 경제기술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험도 참고하고 일정한 방조도 받았지만 정치사상분야에서만은 모방과 수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으며 모든것을 독창적으로 풀어나갔다. 뿐만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심도있게 진행하여왔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왔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고한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지금 세계에서 제노라하는 나라들도 분파행위와 민족문제를 비롯한 복잡하고 골치아픈 내부문제들로 하여 진통을 겪고있다. 만일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똑똑한 정치리념이 없이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영향을 받았더라면 일심단결된 오늘의 주체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을것이다.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하고 당정책을 신념화한 전체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무너지고 적대세력들의 반동공세가 집중된 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최강의 국방력도 갖출수 있었다.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살수 없고 몇천개의 핵탄두에도 비할수 없는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적힘이다.

2.3.3.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

우리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이다.

국가의 자주권을 견지하고 지속적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든든한 밑천이 있어야 한다.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킬 방위력이 없이는 자주정치도 실현할수 없고 언제 가도 부국강병의 위업을 성취할수 없다.

자력으로 살아나가는것이 정당하고 보람있는 길이지만 대다수 나라들이 남에게 의존하는것은 자력의 길이 간고한 시련의 고비를 이겨내야 하는 어렵고 힘든 길이기때문이다. 패권을 추구하는 렬강들의 치렬한 세력다툼속에서 국가의 자주적발전을 일관하게 보장한다는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다. 지난 시기 독자성을 지향하던 나라들까지 대국추종에 빠져드는 기본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력사적으로 적대세력들의 공격의 화살은 자주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에 집중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과 압력속에서도 자력의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력사적중임을 기꺼이 수행하여왔다.

자력갱생의 정당성과 위력은 우리 공화국의 전로정에서 뚜렷이 증명되였다.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돌진하여온 우리 나라는 남들이 걸어온 수세기를 도약하여 강대한 힘을 비축하였다. 세계는 아직 어느 나라도 작은 나라가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봉쇄, 기만을 견제하며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현시기 발전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의 상품시장, 무기시장으로 더 깊숙이 전락되고있는 때에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는 우리 공화국뿐이다. 아직은 경제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지만 우리 공화국

의 국력은 무궁무진하다. 그 어떤 힘도 우리 공화국이 나아가는 길을 변경시킬수 없고 경제를 질식시킬수 없으며 전인민적인 방위체계를 당해낼수 없다.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발전전망은 대단히 크며 오늘 우리 공화국은 거대한 국제적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2.3.4.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

우리 공화국은 계승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이다.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 계승문제는 관건적이면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계승년대에는 분파가 생겨나고 좌절과 혼란을 겪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데로부터 지난 시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게 된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계승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한때 종파가 나타나 못된짓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령도의 계승문제와 혁명전통계승문제, 후비대를 키우는 문제를 특별히 중시하고 커다란 힘을 넣어온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굳건하였으며 야심가, 음모군들의 그 어떤 책동도 통할수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혁명의 대를 잇는것을 국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수령을 개인으로 보면서 령도의 계승문제를 최고직책을 넘겨받는 식으로 대치할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위업의 력사적전환기때마다 참다운 후계자를 내세우고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였다. 그리고 전체 인민들과 새 세대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고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꾸준히 교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문제해결에서도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다.

세계적으로 청년문제를 관심하는 나라들은 있어도 청년중시를 당과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로 튼튼히 키워나가는 나라는 없다.

청년세대가 비사상화, 비조직화되고 향락에 빠진 나라는 미래를 잃고 정신문화와 재부를 바로 계승하지 못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어릴 때부터 혁명적인 교육교양과정을 거친 새 세대들을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단련시키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주력이 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견결히 보위하고있으며 계승자의 대부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되고있다.

오늘 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상에 대해서도 감탄하고있지만 강력한 국가정치체계가 편파없이 계승되고있는데 대하여 더 부러워하고있다. 그것은 계승성이 확고한 국가에 무한한 발전성과 창창한 전도가 있기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난문제로 되고있는 계승문제를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것이야말로 주체조선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

철저한 인민성과 사상의 유일성, 확고한 자립성과 일관한 계승성은 우리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이다. 세계가 알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막강한 국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관이나 추상이 아니라 타당성과 생활적바탕을 가진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강대하고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끝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국가건설의 만년재보는 명실공히 불세출의 수령이시며 탁월한 국가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마련되였으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억척으로 다져지고있다. 이러한 특출한 재보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나라인 주체조선의것으로만 남아있을것이다.

2.4.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에는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휘황한 전도에 대한 긍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가 뚜렷이 밝혀져있다.

2.4.1.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은 우리 조국의 만년재보이며 사회주의위업완성의 근본초석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리론,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수령이 나라와 민족, 인민을 위하여 이룩한 고귀한 혁명업적은 인민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을 모신 높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수령의 업적을 끝까지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리론, 령도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수령님과 장군님의 위대성을 더 잘 알수 있으며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수 있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간다는것은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풀어나간다는것이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국가건설과 활동을 령도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신대로 국가건설의 모든 사업을 벌려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일해나가는것은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투쟁해나가는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가 있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빛내이는 길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이 은을 내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귀중한 밑천들은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토대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더없이 귀중한 재보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을 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귀중한 씨앗들이 풍요한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국가건설업적을 어떻게 빛내여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는 내 조국의 모든 귀중한 밑천들을 사회주의국가건설을 위한 귀중한 토대로, 도약대로 삼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다음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는 우리 국가의 우월성과 불패성의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떠나서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걸음걸음 따르는 나날에 우리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누릴수 없는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주체혁명의 명맥이 꿋꿋이 이어지고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공화국기가 더욱 힘차게 휘날리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 세계를 경탄시키는 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현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때 부닥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물리치고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수령의 사상체계이며 령도체계이다.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유일적령도를 가장 철저히,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전체 인민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당중앙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사업전반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다음으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현시기 우리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이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모든 부문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워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우리 공화국을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인 지위에 당당히 오른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는것이다.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이 건설하는 경제강국의 참다운 면모는 그것이 철저한 자립경제강국이라는데 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가지는 긍지와 자부심은 더 크며 남다른것이다.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정신과 혁명적열의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하여야 한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국가경제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쥐고 련쇄고리를 추켜세우며 전망적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추진해나가야 한다.

경제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여야 한다.

당면하게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을 당과 국가가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기본전선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은 다음으로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인재와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이다.

국가적으로 인재육성과 과학기술발전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부문에서 종자론을 옳게 구현하고 집단주의를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호상간, 과학연구기관호상간 그리고 과학연구기관과 대학들사이의 련계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것이다.

새 기술개발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인재에 의하여 결정된다.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지식경제시대, 인재들에 의하여 국력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시대에 우리 인민모두를 과학기술인재들로 키워 우리 나라를 최단기간내에 인재대국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사상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원칙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전체 인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과학기술인재,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한 과학기술인재들로 키우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과학자이건, 기술자이건, 일군이건, 근로자이건 할것없이 누구나 다 과학기술의 소유자가 되여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며 자기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할수 있는 특색있는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또한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자면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소양을 지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재부를 풍부히 하고 오늘의 혁

명적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모를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온 나라에 기백과 랑만이 차넘치게 하며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조선사람들의 슬기와 힘을 떨쳐야 한다.

사회주의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와 미학관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나가야 한다.

2.4.2.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방도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방도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이에 맞는 국풍을 수립하는데 주목을 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이에 맞는 국풍을 수립하는데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풍은 그 나라의 고유한 풍속이다.

우리 나라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우수한 국풍이 있다. 자주성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남달리 애국심이 높으며 투쟁하기 좋아하고 단결력이 강하며 화목하게 사는것과 같은것은 우리 인민이 력사적으로 살아오면서 형성하고 대대손손 이어온 훌륭한 국풍들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부강조국을 건설하여온 력사적과정에 형성된 고유하고도 우수한 국풍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토대로 된다.

우리 나라에 아직 부족한것도 있지만 이러한 훌륭한 국풍을 가지고있기에 사상정신과 인정면에서는 부자라고 할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국풍을 적극 살려나가면서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는 새로운 국풍을 계속 창조해나가야 한다.

군사를 중시하고 조국보위를 가장 성스럽고 영예로운 제일국사로 간주하는 전인민적인 애국기풍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공화국공민 누구나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며 전체 인민이 강국의 공민답게 존엄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것을 습벽으로 굳혀야 한다.

남녀로소 누구나 국화와 국수, 국조, 국견과 같은 나라의 상징들을 잘 알고 적극 애호하며 일상생활의 한부분으로 여기는 사회적풍조를 세워야 한다.

강국인민의 자존심은 국가의 위대성에 대한 자부와 함께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기 위한 강렬한 의지를 발휘해나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침체와 답보를 배격하고 끊임없이 새것에 도전하는 담대하고 진취적인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방도는 다음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오늘의 현실에 맞게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존엄높은 공화국의 주인다운 리상과 포부, 투쟁기풍과 창조본때를 지니고 문명하게 생활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열렬하고도 진실한 애국충정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교양을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교양사업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온 사회에 애국열, 투쟁열, 창조열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나가는데서 나서는 방도는 다음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발양하는것이다.

우선 전체 인민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일해나가야 한다.

나라의 중임을 맡고있는 일군들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과학적으로, 책략적으로 조직전개하며 큼직큼직한 실적을 내야 한다.

또한 전체 인민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속에서 승화발전된것이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일원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유산을 옳게 계승하고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이 구현된 우리 식의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를 창조하여 문명건설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마중해가는 우리 인민의 민족사적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할것이다.

3. 결 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은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리상사회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기치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위력한 정치사상적무기로 틀어쥐고 강대한 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무진막강한 국력과 비약적인 발전잠재력을 만천하에 떨치며 날로 강

화되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완수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전체 인민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의 령도따라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야 한다.

실마리어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건설사상, 국풍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리 정 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인민정권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정권이다.

국가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 대한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서 그 형태와 역할은 사회제도마다 다르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며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권이 사회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대립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정권이 착취계급,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수단으로 복무한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과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이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적무기이다. 인민정권기관들에는 주권기관들과 각급 인민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행정적집행기관들, 사법검찰기관들이 속한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변함없이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4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합동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시고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로선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비롯한 여러 로작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정치적무기인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우리 당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로선의 중요한 내용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

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우리 당의 변함없는 총로선이라는것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인민정권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시였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높이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인민정권기관들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가일층 강화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은 인민정권의 기본기능이다. 인민정권의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며 그 발전을 조직하고 조절통제하는 포괄적인 기능이다.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은 전사회적범위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고 창조적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이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를 실현한다는데 인민정권의 통일적지도기능의 특징이 있다.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은 인민정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기능이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고 심화될수록 더욱더 강화하여야 할 필수적인 기능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개별적부문과 단위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사업도 인민정권기관들의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를 철저히 보장하는 기초우에서만 옳바로 진행될수 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해나가야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우선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합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정치생활에서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우월한 정치제도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성과는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우월성과 공고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정치제도가 공고하고 그 우월성이 발양되면 안정된 사회적환경과 질서가 마련되고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열의가 발휘되게 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이 더 잘 진행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인민정권기관들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는 사업에 귀착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법을 작성공포하고 집행하며 사회주의의 원칙에 맞게 사람들의 정치활동을 조직지휘한다. 주권기관선거와 국가관리, 법무생활, 사회정치활동을 비롯하여 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정치제도의 본태를 적극 살리면서 그 발전을 촉진시켜나가자면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사명에 맞게 정치생활에 대한 조직과 지도, 장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철저히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여있다. 중앙집권제가 없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한다면 사회주의사회를 옳바로 관리운영해나갈수 없다.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치제도를 허물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은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데 집중되고있다. 현실적으로 적대세력들은《인권유린》이라는 미명밑에 우리의 정치제도를 헐뜯으며 국제적고립압살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오늘의 준엄한 정세의 요구로 보나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로 보나 인민정권기관들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기능을 강화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정권기관들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또한 경제강국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략적로선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계획경제이며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대규모의 집단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는 생산수단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근로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실제적주인으로 되고있으며 국가가 생산과 건설전반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기때문에 전반적인 경제부문들의 발전방향과 목표가 통일적으로 작성되고 인적 및 물적자원과 생산잠재력이 전사회적범위에서 최대한 동원리용됨으로써 생산이 높은 속도로 장성한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을 비롯한 인민정권기관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인민정권기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건설목표와 방향을 바로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데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리와 원칙을 구현하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와 방법을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는 사업은 내각을 비롯한 인민정권기관들이 경제사업을 어떻게 작전하고 지휘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되게 된다.

현시기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에는 사회주의적소유를 확고히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보다 선진적이고 발전된 경제관리방법을 탐구적용하기 위한 투쟁,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서 기관,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성격을 고수하고 그 위력을 최대로 발휘해나가기 위한 투쟁들이 속한다.

내각을 비롯한 인민정권기관들이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원칙과 방향과 방도를 철저히 구현하여 주도세밀한 구상과 계획,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과 전개, 과학적인 지도로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 높여나갈 때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이 높이 발양될수 있으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련속적인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

인민정권기관들의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야 또한 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수 있다.

문화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문화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인민정권기관들의 통일적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정치, 경제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문화건설도 인민정권기관들의 통일적인 지도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교육과 과학, 문학예술과 보건, 체육을 비롯하여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들은 내각을 비롯한 인민정권기관들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가 원만히 보장되고 그 수준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아질 때 보다 빨리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문화제도가 우월하다고 하여도 인민정권기관들이 사회주의문화건설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지 못하면 인민들에게 발전되고 문명한 문화생활을 마련해줄수 없게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문화를 우리 식으로 개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교육사업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보건사업을 개선하고 문학예술부문사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데 대한 문제, 체육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전진을 가져오자면 인민정권기관들의 통일적지도를 강화하여 사회주의문화제도의 우월성을 흐리게 하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하면서 문화분야의 모든 사업들을 과학적인 전략과 방법론을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한다.

이처럼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발전의 모든 분야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발양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주체의 혁명철학이 구현되여있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투철한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근로하는 인민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정치로 하여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해당 국가의 위대성과 발전전망은 인민에게 어떤 지위를 부여해주고 어떻게 복무하는가, 인민들속에 얼마나 든든한 지반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좌우된다.

나라의 근본은 인민이며 인민이 주인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국가는 없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이다. 인민이 주인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권기관들의 모든 활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데 철저히 지향복종되여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사회주의의 생명력과 우월성이 높이 발휘될수 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데서 결정적으로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가장 인민적인 정권이다. 지난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정권이라고 하면 주로 권력기관으로 인정되여왔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여러 나라에서도 정권의 기능을 권력기능으로 보았다. 물론 사회주의정권에서 권력기능을 떼낼수는 없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권을 권력만능의 정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권력만능은 인민에 대한 정치적지배를 실현하는 착취계급의 정권에 고유한것이다. 착취사회의 국가정권은 지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다스리는 무기이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국가정권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기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힘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힘을 최대로 발양시키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 의거하는것은 실천적으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시켜나가는데서 표현된다. 그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자주적요구의 실현에 의하여 담보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역할은 창조적능력의 발양에 의하여 담보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높은 자각적열의밑에 창조적지혜와 힘을 적극 발양시켜나가는 사회가 진정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사회라고 말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의 실현과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국가관리와 사회발전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의 발양과정은 인민대중의 힘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이 큰 위력을 발휘해나갈수 있도록 조직동원하고 이끌어주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힘을 최대로 발양시키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로서의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매개 근로자들이 정치적권리를 행사하지만 전체 인민의 자주적권리는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되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대표된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인민들의 자주적권리가 철저히 보장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변하여야 할 인민정권이 약화되거나 변질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는것은 물론 자기의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은 사회주의정권이 인민의 리익을 저버리고 권력기구, 관료기구로 변질되면 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되며 결국은 자기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이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하는데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인민의 자주적권리를 대표하는 정권기관으로

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빼앗으려는 외부의 적대세력과 내부의 불순분자들의 책동은 계속되며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정권의 독재기능은 필수적이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해나서는 온갖 원쑤들에 대한 독재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우고 투쟁을 강화해나가야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정치제도의 안전을 지켜낼수 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최대로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창조적능력을 발양시키는 사업은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옳바른 지도와 방조속에서 실현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과 활동을 조직동원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이 반영된 국가활동의 모든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대중자신의 힘이 충분히 동원되여야 현실에서 은을 낼수 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할수 있는 사업체계와 방법을 확립하고 자기의 역할을 높여나가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방대한 혁명과업들을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해나갈수 있다.

만일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주관과 독단, 관료주의와 같은 낡은 사회의 관리방법이 되살아나게 되고 결국은 군중의 창조적힘의 발양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산생되게 된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을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내세우고 최우선시하며 사회발전의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에 지향시키는 사회가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사회주의사회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은 인민을 위한 물질문화적재부가 더 많이 창조되고 인민들이 그 향유자로서의 실질적인 덕을 입는 과정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매 개인이 자기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사명이며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기관들이며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의 집행자이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생활상불편과 고충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시책들이 은을 낼수 있으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전진이 이룩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정권기관들이 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이 실

질적으로 덕을 볼수 있는 사업들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설계하며 인민이 바라는 일을 찾아 끝까지 실천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것을 바라고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살림집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우리 당과 국가의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정확히 실시해나갈 때 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생활을 통하여 실감하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떨쳐나서게 된다.

이와 같이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업하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하며 각급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 때 우리 국가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겨나가게 될것이다.

실마리어 인민정권기관, 인민대중제일주의, 사회주의정권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

교수 박사 우향숙

1. 서 론

지금까지 여러 론문에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기본내용에 대하여 해설전개하였다.

대표적으로 보면 소론문 《주체철학은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독창적인 철학》(《**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이다.

론문에서는 주체철학이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독창적인 철학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주체철학이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히는것을 주되는 철학적과제로 내세우고 전개된 철학이기때문이며 둘째로, 주체철학이 선행철학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원리들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전개하였기때문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해설한 소론문들도 많이 제기되였다. 대표적으로 소론문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기본내용》(《사회과학원학보》 4 사회과학출판사, 주체99(2010).), 소론문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작용을 규제하는 근본요인》(《철학연구》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9(2010).), 소론문 《3대개조사업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견해》(《철학연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3(2004).), 소론문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은 주체철학이 내세운 중요한 철학적과제》(《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7(2018).), 소론문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활동의 강화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전면적으로 관철되도록 하는 기본요인》(《철학연구》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1(2002).), 소론문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전면적관철조건》(《**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1(2002).) 등이다.

지금까지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였지만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해설한 글은 나오지 못하였다.

본 론문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 론

주체철학은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였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운동법칙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성된 리해를 확립한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공적이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92～493페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것은 철학발전과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는 사회주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따라서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의 발전수준은 사회주의위업수행과 결부하여 보아야 응당하게 평가될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력사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 자주시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는 이전 시대에 나서지 않았던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된다.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의 면모와 사회주의건설의 종국적목표,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로정, 방도 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여야 한다. 더우기 적대세력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헐뜯고 외곡하며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공세, 반사회주의적악선전을 악랄하게 벌리는 조건에서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하게 제기된다.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이러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바로 풀어나가기 위한 열쇠가 바로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할데 대한 시대적요구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에 의해서만 완벽하게 해결될수 있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앞에 나서는 중요한 철학적과제이다.

사람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면 사회를 빨리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사회적운동발전에 작용하는 법칙을 옳바로 밝혀야 한다.

자연의 운동이나 사회적운동에는 다 일정한 법칙이 작용하며 따라서 운동에 대한 리해는 곧 법칙에 대한 리해로 된다. 사회력사적사건, 사변들의 발생과 그 발전과정에서 일관하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현상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론리적으로 체계화할수 있는 근거

를 밝혀놓은것이 사회적운동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이다.

지난 시기에는 주로 사회적운동의 합법칙성을 자연의 운동과의 공통성의 견지에서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운동에 대한 해석에서 일면성을 면할수 없었으며 사회적운동의 특성도 그 발전의 합법칙성도 밝힐수 없었다.

선행리론을 교조주의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에서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경제건설만 내밀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수준을 빨리 높이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지 않았다. 그 결과 사회주의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게 되였으며 결국은 경제건설도 잘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피흘려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인 사회주의제도가 자기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잃게 되였고 종당에는 적대세력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였다.

선행리론의 제한성과 불합리성이 확증된 조건에서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근본차이를 밝히는것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임무로 제기되였으며 이것이 다름아닌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는것으로 된다.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운동의 근본원인과 동력,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과 추동력, 사회발전과정에 대한 완벽한 리해를 줌으로써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한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 이룩한 주체의 사회력사관의 공적이 있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은 무엇보다먼저 력사의 주체에 관한 과학적인 리해를 주었다는데 있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철학발전에서 이룩한 가장 큰 공적은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해명한것이다.

력사의 주체문제는 사회력사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에 관한 문제이다. 력사의 주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데 따라서 사회력사를 보는 관점과 립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제로 된다. 이것은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에 의하여 사회적운동에 고유한 합법칙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것이 규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력사의 주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의하여 사회적운동에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고유한 합법칙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만일 사회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 주체가 없다고 하면 사회적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객관적, 물질적운동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자연발생적과정이라고 보게 된다. 이와 달리 사회적운동에 이 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담당자, 주체가 있다고 하면 사회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작용한다고 보게 된다.

장구한 력사속에는 진보와 보수, 전쟁과 평화, 단결과 불신, 사랑과 증오와 같은 대립되는 현상들이 공존하였다. 외형상으로는 각이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 제각기 빚어놓은것처럼 보이는 상반되는 사회현상들속에는 력사의 전진을 낳고 그 전진을 이끄

는 힘, 동력이 있게 된다. 력사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과 인연이 없는 사건, 사변들은 개별적이며 비본질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오직 력사를 움직이는 실제적인 동력 즉 주체와 결부하여서만 모든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과정을 옳바로 밝혀낼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력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데 따라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내용이 규정된다.

사회에는 사회발전에 대한 지향과 요구를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가져오는 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계급, 집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사회발전을 가로막거나 퇴보시키는 계급, 집단도 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그 실현능력을 가진 계급, 집단만이 사회력사적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담당자로 되며 력사의 주체가 지니고있는 이러한 특성이 발현되여나가는 과정이 곧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내용으로 된다.

이처럼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을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기초적인 문제로 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할뿐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명을 준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우선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으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다. 이것은 자연에는 주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는 존재가 없다는것이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사회적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이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이라는것 다시말하여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을 결정적요인으로 하여 일어나고 발전하는 운동이라는것이다.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은 사회적운동의 목적을 내세우고 그 실현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 수단들을 마련하며 발전시켜나가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원인도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주체에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은 주체의 주동적작용과 역할과 결부하여서만 정확히 리해할수 있다.

사회적운동에는 주체적요인과 함께 객관적요인도 작용하며 객관적조건은 사회적운동이 발생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운동에 주체적요인과 객관적요인이 다같이 작용하는것으로 하여 두 요인가운데서 어느 요인의 작용이 기본인가 하는 문제가 반드시 제기된다. 사람들은 객관적조건을 무시하고 력사를 창조할수 없지만 객관적요인이 사회적운동의 발생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적운동의 발생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이다.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사회발전에 미치는 객관적요인들의 작용이 인식되고 리용되며 유리한 객관적조건이 주동적으로 마련되고 부단히 개조발전되여나간다. 사회적운동이 넓은 범위에서 더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객관적조건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데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이 높은가 높지 못한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적운동이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이라는데로부터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회적운동의 결정적요인을 주체에서 찾고 주체의 주동적인 역할을 높이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사회적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또한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만일 사회발전의 담당자를 초자연적인 《신》이나 왕, 군주와 같은 소수 지배계급, 착취계급으로 보면 사회력사에 대한 종교적, 관념론적관점과 립장에 떨어지게 된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운동의 담당자를 인간의 본성적요구를 체현하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계급, 사회적집단으로 보면 사회적운동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에 서게 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밝힌 인민대중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사람의 본질적특성과의 관계에서 인민대중의 본질과 인민대중의 성원을 가르는 기본척도를 새롭게 밝힌것이다.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주적요구와 창조적활동의 공통성으로 결합된 사회적집단이다. 자주적요구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느 계급, 어느 계층의 출신이든지 인민대중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을 이루게 된다.

인민대중이라는 말은 사회계급관계를 반영한다. 이것은 인민대중인가 아닌가 하는것이 그의 사회계급적처지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로동자, 농민 등 인민대중을 이루는 여러 계급들에서 공통적인것은 그 계급들이 다 근로자들의 집단이라는것이다. 근로하는것은 사람들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질수 있게 하는 계급적바탕으로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근로하는 사람들을 기본구성부분으로 하게 된다.

인민대중이라는 말이 사회계급관계를 반영하지만 그것이 순수 계급적개념인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 하는것이 반드시 사회계급적처지에 의해서만 규정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사상과 행동은 사회계급적처지의 영향만 받는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혁명적인 영향을 받고 선진사상을 체득하면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떠하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성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기본척도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계급적토대를 가졌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민대중으로 결합시키는 중요한 사상적기초는 사회주의사상과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사상과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이 다같이 사람의 본성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상과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계급의 출신이며 어디서 사는가 하는데 관계없이 조국과 민족,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고 력사가 발전하기때문이다. 생산력과 물질적재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사상문화적재부는 모두 인민대중의 력사적인 투쟁과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며 사회적관계, 사회제도도 인민대중에 의하여 개조변혁된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 창조적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진보와 력사의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력사적운동은 바로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 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활동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주체의 운동이며 이 주체의 운동법칙이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다.

이처럼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회적운동법칙을 주체의 운동법칙으로 파악할수 있게 한 바로 여기에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원리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공적이 있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은 다음으로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완벽한 리해를 주었다는데 있다.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조차 되지 못하였다. 자연과 사회에 다같이 작용하는 요인을 찾고 그것으로 사회력사적운동법칙을 해설하는 관점에서는 결코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수 없다.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문제는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사회적운동의 근본차이에 관한 문제로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히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을 밝힌다는것은 사회적운동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운동의 특성을 해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이 밝혀진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운동의 특성이 해명됨으로써만 사회력사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이 해명되였다고 할수 있다.

사회력사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발전한다.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적특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운동이라는데 있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우선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활동이며 투쟁이라는것이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수행하는 활동이며 투쟁이다.

사회적운동은 주체가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운동이다. 이로부터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사회적운동의 본질을 규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을 벌려나가는 근본목적은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이다. 인민대중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참답게 살아갈수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력사적운동을 통하여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들을 없애야만 실현된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을 벌리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게 된다.

인민대중이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을 벌리는 근본목적은 사회적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고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을 벌리게 되는 근본

목적은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물질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을 벌리는 근본목적은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는데 있다. 사회적운동의 매 단계마다 인민대중이 내세우는 투쟁목표와 대상,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어느것이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고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여나간다.

자주적요구는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진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은 모든 활동을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벌려나가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높아질수록 그 실현을 위한 사회적운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된다. 력사는 결국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활동이며 투쟁이다.

사회적운동의 특성은 그에 대하는 담당자의 태도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갈 때에만 자주적운동으로 될수 있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는 활동이다.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자주적요구를 실현해야 할 책임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맡아 할 특별한 존재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은 그 어떤 영웅호걸이나 외세에 기대를 가져서는 어느때 가서도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만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이 자체의 힘과 지혜로 벌려나가는 투쟁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령역에서 벌어지는 비상히 폭넓고 거창한 사업이며 자주성을 유린하는 세력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동반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능력은 인민대중자신에게만 있다.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변혁하는데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바로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력사적결과들이다.

이처럼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여 일어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나가는 활동이며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동이라고 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또한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자주성실현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은 창조적성격을 띤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는것은 그것이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인민대중의 활동이며 투쟁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능력으로 온갖 낡고 반동적인것을 없애고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창조해나가는 활동이며 투쟁이라는것이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창조적능력으로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활동이며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는 창조적능력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자로서 낡은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것을 요구하며 자주적요구를 실현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능력을 가지고있다. 목적의식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것은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인민대중의 본성적요구이며 력사적으로 축적된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식에 기초한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은 세계의 어떤 대상도 새롭게 개조변혁할수 있는 위력한 힘이다. 이러한 창조적능력을 가진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은 새롭고 진보적인것을 창조하면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다. 창조적능력이 발현되여 자주적요구가 실현되는 과정이 곧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과 투쟁과정이다.

이처럼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인민대중의 활동이며 투쟁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라고 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또한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라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활동이며 투쟁이라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회적운동이 사상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일어나고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추동되는 활동이며 투쟁이라는것이다.

사회적운동은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는 인민대중이 벌리는 운동, 사상의식과 지식의 규제작용에 의하여 진행되는 운동이다. 사회적운동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은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이다. 지식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그 형성과 내용, 작용방향이 규정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운동을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사회적운동은 사상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며 투쟁이다.

사회적운동이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사상적으로 각성되는가 각성되지 못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적운동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활동의 목적과 방향,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한다.

인민대중은 사상적으로 각성되여야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회적운동에 나설수 있다. 착취사회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여도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면 착취사회가 강요하는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착취사회를 반대하는 사회적변혁운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는 력사적과정을 놓고보아도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먼저 사회주의사상이 나오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적당을 조직하고 당이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며 그다음 사회주의정권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게 된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사상적각성으로부터 시작되고 각성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추동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며 투쟁이다.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이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자주정신, 신념과 의지의 힘을 말한다.

사회적운동을 떠밀어나가는 인민대중의 힘은 지혜와 재능, 그 어떤 물질기술적수단의

힘이기 전에 사상정신력이다. 물론 사회적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과 물질적수단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민대중은 창조력을 높이 발양하고 물질적수단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변혁해나갈수 있다.

그러나 인민대중이 창조력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고 물질적수단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된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며 사람을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로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모든 활동은 창조력을 높이 발휘하고 물질적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인민대중이 창조력을 얼마나 높이 발양하고 물질적수단을 어떻게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의식에 의하여 직접 규정된다. 사상의식은 지식과 물질기술적수단 등 사람의 활동에 작용하는 다른 여러가지 요인들의 작용을 규제한다.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은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혁명적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깡그리 바치며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인민대중이 견인불발의 사상정신력을 발양하면 할수록 사회적운동이 다그쳐지고 전진속도는 더 빨라지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인민대중이 강한 사상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어도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지만 인민대중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운동이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에 의하여 추동되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며 투쟁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사람의 활동에서 가장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것은 사상의식이며 사회적운동의 기본추동력으로서의 사상의식이란 다름아닌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인민대중이 옳바른 계급적립장과 태도,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력사를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추동되는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의식적인 운동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운동의 본질적특성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회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운동이라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사회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한 바로 여기에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원리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공적이 있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공적은 다음으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완성된 리해를 주었다는데 있다.

사회적운동을 통하여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여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리해는 사회의 구성부분과 사회발전분야 등 여러 측면에서 주어질수 있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우선 사회발전과정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높아지는데 맞게 사회적재부가 늘어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여나가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밝혀준다.

이것은 사회의 구성부분들의 합법칙적인 련관속에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혀주는것이다.

사회발전과정은 본질상 인민대중의 발전과정이다. 그것은 사회의 발전이 인민대중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며 사회의 발전수준도 인민대중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사람과 사회적재부, 사회적관계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발전은 인민대중의 발전에 의하여 대표되고 인민대중의 발전에 귀착되게 된다.

사회의 발전과정이 인민대중의 발전과정이라는것은 사회의 발전이 인민대중의 발전으로만 이루어진다는것이 아니다. 사회의 발전은 인민대중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의 발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의 물질적 및 정신문화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

자연과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높아지고 자연과 자기자신을 개조할수 있는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맞게 인민대중의 활동이 보다 적극화되며 그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물질적재부가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되며 보다 풍부하고 발전된 정신문화적재부가 창조된다. 그리고 인민대중이 사회적관계의 개변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혁명적능력을 지니는데 따라 선진적인 사회관계, 사회제도가 수립되고 공고발전된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또한 사회발전과정은 3대개조사업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합법칙적과정속에서 이루어진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활동의 세 분야들사이의 합법칙적련관속에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혀주는것이다.

3대개조사업의 매 분야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다같이 중요한 분야들이지만 사회발전의 어느 시기나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것은 아니다. 혁명발전단계에 따라 세가지 개조사업가운데서 보다 전면에 나서는 개조사업이 있게 된다.

혁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어느 개조사업이 전면에 나서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시기에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주되는 과업,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발전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가자면 혁명발전단계에 맞는 옳바른 투쟁목표와 과업을 내세우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혁명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어느 개조사업이 전면에 나서는가 하는것은 해당 시기에 인민대중의 어떤 자주적요구의 실현이 보다 절박하게 제기되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자연과 사회, 자기자신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가운데는 혁명발전단계에 따라 다른 요구에 비하여 더 절박하게 나서는 요구가 있게 되며 이 요구실현을 위한 개조사업이 보다 전면에 제기되게 된다.

착취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이 전면

에 제기되고 수행되며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이 보다 전면에 제기되고 수행된다.

사람에게서 가장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은 착취사회에서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는 낡고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사업을 전면에 제기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민대중은 자연의 완전한 주인, 자기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기 위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자연개조, 인간개조사업이 보다 전면에 나서게 된다.

이처럼 사회의 구성부분과 자주성실현을 위한 인민대중의 활동분야의 견지에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바로 여기에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원리가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중요한 공적이 있다.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의 사회력사원리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완성할데 대한 철학적과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인민대중을 력사와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는 리상적인 사회, 참다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이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할수 있은것도,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준엄한 환경속에서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있는것도 결국은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주체의 사회력사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왔기때문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오늘 반제자주위업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는것이야말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확증으로 된다.

3. 결 론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힌 원리에 의하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회적운동법칙에 대한 새롭고 전면적인 리해가 주어지고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이 완성되였다는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인류의 진보적인 철학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완성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주체철학의 기본원리들에 대한 연구를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해명에 지향시키고 사회생활과 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견지에서 분석평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사회생활과 발전에서 견지하여야 할 진정한 정의는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의 견지에서만 정확히 평가할수 있으며 이 합법칙성을 옳바로 인식하고 철저히 구현하는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 사회주의를 압살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불법무법의 온갖 비정상적인 행위

들을 끝장내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사회적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에 관한 리론을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의 길로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뚜렷한 목표와 전망을 가지고 승리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나아갈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사회력사관, 사회적운동, 인민대중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주체철학은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

박사 부교수 김 룡 진

1. 서 론

사회주의발전사에 미증유의 기적들을 창조하며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온 우리 식 사회주의는 오늘 위대한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전진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가 온갖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오면서도 추호의 동요나 주저도, 순간의 침체나 답보도 없이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추켜들고 오직 곧바른 승리의 길로만 줄달음쳐올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철학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정치의 옳바른 향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주체철학은 철학발전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완성된 세계관으로서 사회주의정치사에 미해명문제로 남아있던 가장 과학적인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준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사회주의정치의 과학적인 원리적기초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정치사에 위대한 본보기를 창조할수 있었고 사회주의의 참다운 우월성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에 대한 연구는 지난 시기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깊이있게 진행되여왔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에 관한 문제를 론의한 대표적인 글로서는 소론문《사람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참다운 정치의 중요한 원리적기초》, 소론문《주체철학은 위대한 정치철학》, 소론문《주체철학은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등이 있다.

소론문《사람에 대한 주체적견해는 참다운 정치의 중요한 원리적기초》(《**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0(2011).)에서는 사람에 대한 주체적견해가 참다운 정치의 원리적기초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람, 인민대중의 사회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단결과 협조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리론적담보로 되며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본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원리적기초로 되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소론문《주체철학은 위대한 정치철학》(《**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2(2013).)에서는 주체철학이 인민대중의 본성에 맞는 참다운 정치를 실현할수 있는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정치철학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소론문《주체철학은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6(2017).)에서는 주체철학이 정치의 중심

에는 반드시 인민대중을 놓아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해야 하며 정치는 반드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해야 한다는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으로 된다는것을 해설하였다.

선행연구성과들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치의 본질과 생활력,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비롯한 많은 정치적문제들을 주체철학이 밝혀주는 원리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원리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사회주의정치실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리해하는데서 큰 도움을 주고있다.

본 론문에서는 선행연구성과들을 참작하면서 주체철학이 인민대중중심의 정치리념을 구현하고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방향과 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혁명적으로 밝힌 완성된 세계관일뿐아니라 참다운 인민적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으로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되고있다.

주체철학이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줌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정치의 진정한 주인이 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높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사회발전에서 정치는 주도적이며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자면 무엇보다 정치문제부터 바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정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고 사회발전에서 주도적작용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정치로 될수는 없다. 정치가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 이바지되는 정치로 되자면 그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정치의 원리적기초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해당 정치의 성격과 목적, 그 실현방향과 방식,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위력과 생활력을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정치가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해당 사회정치의 근본원리와 정치의 본질, 고유한 정치방식확립을 비롯한 정치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설정될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정치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하는 사업인것만큼 정치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며 정치가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진가가 결정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정치가 자기의 본태를 갖추고 본래의 사명을 다하자면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을 내세우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것으로 하여 이 문제는 지난 시기 오래동안 정치문제론의에서 중요한 문제로 되였으

나 지금까지 어느 정치리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옳바른 대답을 주지는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의 발전은 정치에 의하여 향도되며 사회발전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철학이 바로 주체철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철학은 정치철학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415페지)

주체철학은 주체시대가 제기한 모든 철학적문제들에 대하여 심오한 해답을 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사회주의정치의 가장 완성된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이다.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리론이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담보해나가는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명확히 밝혀주고있으며 사회주의정치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그들의 역할을 높여 풀어나가도록 한다.

모든 정치는 해당한 정치리념에 의하여 실현되며 정치에서 차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은 많은 경우 정치가 어떤 정치리념에 기초하여 실현되는가 하는데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그것은 인민적인 정치리념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인민대중에게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치가 실시되고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리념이 살판치는 곳에서는 인민대중이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커다란 불행을 겪고있는 사실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는 자주, 민주, 인덕의 정치리념을 구현하고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자주독립국가의 존엄과 영예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나갈수 있는 자주적인 정치와 인민대중모두를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모두에게 동등한 정치적자유와 권리,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철저히 담보하는 민주주의적인 정치,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피고 정으로 이끌어주는 인덕정치로 되고있다.

자주정치, 민주정치, 인덕정치의 출현은 정치사에서 력사적변혁이며 그것은 주체철학이 그 원리적기초를 밝혀줌으로써 비로소 실현되였다.

주체철학은 무엇보다먼저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데로부터 정치에서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해야 한다는 자주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준다.

사물현상의 존재와 발전에서 생명으로 되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것으로 되는것만큼 정치가 사회발전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의 담당자인 인민대중과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인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를 확립하여야 한다. 인민대중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가 있어야만 정치가 그것을 굳건히 옹호고수해나가는 방향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해나감으로써 사회발전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해나갈수 있다.

주체철학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성이 사람, 인민대중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천명함으로써 사회발전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해나갈수 있는 정치의 가장 과학적인 원리적기초를 밝히였다.

자주성은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속성이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으로 자주성을 짓밟히고 유린당하면 비록 육체적생명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존엄있고 값있는 삶을 누릴수 없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잃어버린 인민대중은 민족적 및 계급적착취와 억압을 비롯한 온갖 사회적예속과 구속을 받으면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한 인민대중만이 온갖 사회적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있고 값높은 삶을 누려나갈수 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일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은 나라와 민족이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주성에 달려있다는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온갖 지배와 예속, 간섭을 단호히 물리치고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하면 흥하고 발전하지만 외세의 지휘봉에 따르거나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외부세력의 강요에 따라 처리해나가면 반드시 쇠퇴와 몰락을 면할수 없다.

주체철학은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사람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는 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생명인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정치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 창조적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동시켜나가게 한다. 한편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는 원칙에서 진행되는 정치는 해당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그 어떤 책동속에서도 자기 인민, 자기 민족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회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바로 여기에 자주성을 견결히 끝까지 옹호고수하는 정치가 사회발전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는 위력한 정치로 되게 되는 주되는 리유가 있다.

우리 당과 국가는 자주성이 사람과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밝힌 주체철학의 원리를 정치에 철저히 구현하여 적대세력들의 계속되는 책동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자주정치를 펼침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해나가고있다.

주체철학은 다음으로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이며 정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데로부터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준다.

민주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방식이며 인민대중을 정치에 인입시키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 인민을 정치에 참가시키고 그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는것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을 정치실현에서 어느 위치에 놓는가 하는데 따라 참다운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가 갈라진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며 인민을 정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는 정치방식이다. 때문에 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철저한 위선이며 궤변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정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다.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정치를 맡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자면 정치에서부터 주인이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되여야 모든 사회생활을 주인답게 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정치는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여 실시하는 인민의 정치이다. 착취사회에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계급적지배를 보장하기 위한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의 대상으로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자기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각자의 활동을 통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자신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진행해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그들이 주권행사에 실질적으로 참가하여 자기의 진정한 대표자들을 자기 손으로 선출하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에 반영하며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데서 표현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부르죠아정치가들은 국민에 의거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에 대하여 광고한다. 그러나 국가주권이 극소수 착취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란 절대로 있을수 없으며 이것은 한갖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하다.

정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정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철저히 구현된 생활로서 사람들이 온갖 민주주의적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생활, 유족하고 문명하며 건전하고 평등한 생활, 안정되고 화목한 생활 등으로 표현된다.

국가는 자기의 모든 권한과 힘을 발동하여 인민대중에게 이러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들이 온갖 구속과 침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수 있도록 보호해준다.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이 됨으로써 당과 국가의 정책이 인민대중의 의사에 따라 세워지고 그것이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관철되고있으며 인민대중이 직접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이 당, 근로단체 등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마음껏 실현하고있으며 인민대중이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

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를 국가로부터 철저히 보장받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정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전적으로 복무하고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정치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정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정치가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민주주의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평등한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으며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주체철학은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데로부터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고 무한히 사랑하며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에 의거해야 한다는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준다.

인덕정치는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영예와 행복을 안겨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정치이다. 뿐만아니라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그에 철저히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치이다.

사회주의정치가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되게 되는것은 그것이 주체철학이 밝힌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라는 원리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며 바로 여기에 정치가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정치로 되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정치가 그 실현의 근본원리를 정확히 밝히고 사회발전을 가장 곧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이 세계에서 얼마나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리해부터 바로 정립하여야 한다.

주체철학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인민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세계에는 인민대중만큼 귀중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물현상도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복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도 가질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은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자연의 사물현상과 사회적현상들을 비롯하여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은 오직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복무하고 이바지할 때에만 자기의 가치를 가질수 있다.

인류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객관세계의 사물현상들의 가치는 오직 인민대중에 의해서만 옳게 평가되며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 가장 가치있는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인민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다.

세계에는 인민대중만큼 힘있는 존재가 없다. 인민대중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객관세계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조변혁하면서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인간을 둘러싸고있는 주위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끊임없이 운동변화하기는 하지만 인민대중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목적의식적으로 개조변혁되지 않는다. 인간을 둘러싸고있는 객관세계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오직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지혜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자신을 위한것으로 능동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개조변혁되여나간다.

사람이 살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변혁적성과들은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인 인민대중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세계에서 인민대중이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이 가장 우월한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발전한다는것은 그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한다는것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는데 맞게 사회의 발전도 이루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인민대중이라는것을 밝힌 주체철학의 원리가 사회주의정치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는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인 인덕정치가 실시되고 그에 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는 시종일관 가장 곧바른 길로 나아가고있다.

3. 결 론

주체철학이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의 원리적기초를 밝혀주는 정치철학으로 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정치의 근본원리가 출현하고 사회주의정치의 기본원칙, 가장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확립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정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지게 되였다. 이와 함께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정치실현에서 나서는 근본원칙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정치방식, 대중을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는 가장 완성된 정치적령도방법에 관한 사상리론 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우리는 주체철학이 있는 한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는 언제나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이 주인이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인민적인 정치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게 된다는 신념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

실마리어 주체철학, 원리적기초, 정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의 근본원천

박사 부교수 **림 철**

1. 서 론

우리 인민의 높은 민족적자존심의 근본원천으로서의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는것은 현시기 주체혁명위업의 개척기에 마련된 우리 인민의 우수한 혁명정신과 민족자주의식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중요성으로 하여 지난 시기 백두의 혁명정신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였다.

석사학위론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리론연구》(김금영, 주체104(2015).)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의 원천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도서 《영원한 조선의 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103(2014).)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계승발전된 혁명정신으로서 우리 인민이 지녀야 할 영원한 혁명정신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백두의 혁명정신은 혁명적투쟁정신의 최고정화,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로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혁명정신이라는것을 론증하면서 영원히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기 위한 방도를 해설하였다.

도서 《백두의 혁명정신》(조선로동당출판사, 1990.)에서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구라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이렇게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여러 참고서가 나왔지만 그것을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과 결부시켜 론의한 글은 없다.

본 론문은 백두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며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라는 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의 근본원천이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것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강행돌파하며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펼쳐나가고있다.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펼쳐지고있는 이 경이적인 현실은 백두의 혁명정신에 뿌리를 두고있는 민족적자존심을 지닌 우리 인민이 안아온 위대한 결실이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으며 더 우월하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민족자주정신이다.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다는 자부심,

자기 운명을 제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각오와 의지가 강한 민족이라야 부강번영할수 있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을 지켜나갈수 있다.

민족마다 력사와 문화, 생활풍습과 특성은 각이하지만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기가 주인이 되여 개척해나가려는것은 공통된 념원으로, 지향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도 시비할수도 없는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다.

민족적자존심은 그 민족을 강대하고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게 하고 인민을 가장 선진적이며 발전된 인민으로 되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매개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적자존심은 생명과 같이 귀중한것으로 된다.

자기 민족이 남만 못지 않다는 민족적자존심,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는 제 정신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살수 없고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못하지 않으며 우월하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발현되는 민족자주정신이다. 다시말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이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민족적자존심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맥박치는 백두의 혁명정신에 뿌리를 두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을 존엄있고 강한 자존심을 가진 인민으로 되게 한 근본원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며 영원한 조선의 정신입니다. 혁명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지고 세대는 바뀌였지만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다져주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떠밀어나가는 사상정신적재보로 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4권 233페지)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의 근본원천이라는것은 그것이 우리 인민이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게 한 정신적기초, 근원이라는것이다. 이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이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가질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정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의 근본원천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마련된 혁명정신이기때문이다.

한나라, 한민족의 정신력은 오랜 력사적발전과정에 형성된 민족정신을 기초, 근원으로 하고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그 나라, 그 민족에게 특징적인 고유한 민족정신이 형성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우수한 정신적특질이 발전하는것은 정신력발전에서 하나의 합법칙성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하는 나라와 민족의 정신력에서도 오랜 력사적기간에 형성된 민족자주정신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하는 나라와 인민의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은 혁명의 개척기에 수령의 령도밑에 형성되는 혁명정신을 시원으로, 바탕으로 하며 그에 기초하여 강한 민족적자존심이 생

겨나게 된다.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떠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자면 그것을 떠밀어주는 혁명정신이 있어야 한다.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민족자주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하여서는 그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과 함께 그 실현을 힘있게 추동하는 숭고한 투쟁정신이 있어야 한다. 탁월한 수령의 위대한 지도사상이 인민대중을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인도하는 라침판이라면 투쟁정신은 혁명을 승리만을 거듭하며 끝까지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떠밀어주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정신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더없이 고결한 투쟁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정신이다.

자기 민족의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높이게 하는 민족자존의 정신은 자주적인 사상을 근본바탕, 사상적기초로 하며 혁명실천속에서 형성된다. 그런데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과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로 일관된 자주적인 사상을 안겨주며 그들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키고 승리에로 이끄는것은 다름아닌 수령이다.

항일혁명투쟁은 력사상 류례없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였으며 가장 성스러운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발휘한 애국투쟁이였다.

일찌기 14살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불타는 애국의 맹세를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총대를 틀어쥐고 피어린 항일대전을 벌리시던 나날에 참다운 민족자존의 정신을 창조하시고 높이 발휘해나가시였다.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사대와 교조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투철한 신념과 의지,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손에 무장을 잡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으며 백절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은 유구한 력사로 하여 강한것도 아니며 재부로 하여 빛나는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우리 민족의 력사가 짧거나 슬기와 재능이 다른 민족보다 부족해서 민족적자존심을 내세우는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 민족은 력사도 유구하고 슬기와 재능에 있어서 다른 민족에 못지 않게 뛰여났지만 지난날 부패무능한 통치배들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력사는 사대와 교조로 얼룩져왔으며 지어 우리 민족의 처지는 외래침략자들의 총칼에 눌리워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던 망국노의 신세로 전락되게 되였다. 그러던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이 암담하던 민족수난사를 끝장내고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이룩하고 이 땅우에 영광찬란한 민족번영사가 펼쳐지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였기때문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수령결사옹위를 핵으로 하는 혁명정신이며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며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태양이시고 통일단결의 중심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준엄한 항일혈전의 나날에 조선혁명의 운명이신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였으며 수령님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쳤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지시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결사관철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지시는 가장 정당하며 오직 그대로 싸워나갈 때 필승불패이라는 굳은 신념을 안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집행하였다. 그들은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어려운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해 꾸준히 학습하였으며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에 어긋나는 현상과는 한치의 양보나 추호의 타협도 없이 맹호가 되여 투쟁하였다.

혁명은 누가 대신할수도 없으며 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성숙된 다음에 일어나는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혁명가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화를 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무장투쟁의 전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서 중요한것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을 개척하시면서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민족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항일유격대원들은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면 할수록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자체의 힘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조선혁명은 오직 자체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할수 있다는 투철한 립장에 서서 자기의 모든 피와 땀, 생명도 기꺼이 바쳐 싸운데 백두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위력이 있는것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에서 중요한것은 혁명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강의한 의지이다. 그들은 맨주먹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로 무장을 갖추었다. 뿐만아니라 도처에 병기창을 꾸려놓고 자체로 무기를 만들어내고 수리하였으며 탄약과 폭탄들을 창안제작하여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용감히 싸웠다. 이와 함께 군복과 의약품을 비롯한 군수물자들과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여 보장하였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이 어렵다고 하여 물러서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사들은 조선혁명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혁명에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는것을 혁명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아무런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강도 일제와 싸워 승리하였다.

혁명투쟁은 그자체가 시련과 난관을 동반한다. 시련과 난관이 크다고 하여 동요하게 되면 혁명은 답보와 침체, 좌절과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 꺾이면 꺾일지언정 굽힘을 모르고 부서질지언정 변색을 모르는것이 혁명가들의 고귀한 투쟁정신, 투쟁기풍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에서 중요한것은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불사조와 같이 싸워나가는 견인불발의 투지이다.

항일혁명투쟁은 간고하고 엄혹한 투쟁이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수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일 때마다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강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맞받아나가는 전략전술로 난국을 헤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혁명의 붉은기를 지켜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이끄시였다.

－40℃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와 계속되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면서 적들과 싸워야 하는 엄혹한 조건에서도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비관과 실망을 몰랐으며 락천적으로 살며 굴함없이 투쟁하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에서 중요한것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혁명앞에 다진 맹세와 순결한 량심을 끝까지 지키는 혁명적지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조국해방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실 굳은 각오를 안으시고 혁명승리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나가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혁명가로서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전장들과 철창속에서도 사소한 동요를 모르고 굴함없이 싸웠다.

참으로 목숨은 버릴지언정 혁명적신념과 의리, 량심을 저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혁명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나가는 이러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보다 더 견결하고 강의한 투쟁정신은 없다.

바로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귀중히 여기고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그것을 빛내여나가겠다는 높은 자각과 강의한 의지, 민족자존의 정신력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창조된 백두의 혁명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 위대한 수령을 결사옹위하여 민족의 운명을 담보하고 민족의 영예를 빛내이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게 되며 그 누구에게도 억눌리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기 민족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려는 민족자주정신을 지니게 된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의 근본원천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온 위대한 혁명정신이기때문이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면 인민들이 지닌 정신력의 원천으로 되는 혁명정신이 높이와 폭에 있어서 가장 숭고하고 풍부한 정신이여야 한다.

혁명정신은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과정에 그 시원이 열리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높이와 폭이 다 같은것은 아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그 내용의 풍부성과 혁명성에 있어서 그 어느 혁명정신에 비할수 없이 최상의 경지에 이른 혁명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참다운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들을 가장 폭넓고도 숭고한 높이에서 담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성,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등 혁명가들이 지니고 높이 발휘해야 할 중요한 사상정신적풍모들이 다 들어있다.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갈 때 혁명가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영웅적인 투쟁으로써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앞당겨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온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고 새 조국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고난의 행군,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칠수 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선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게 한 위대한 사상정신적힘이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한 투쟁정신으로서 우리 인민이 조국수호에서 그 불패의 위력과 거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떨치게 한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핵으로 하고있는 숭고하고 위력한 혁명정신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수령이고 수령은 곧 조국이였다. 조국은 단순히 사람들이 나서자란 고향산천, 선조들의 뼈가 묻힌 땅이 아니다.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이끌어줄 참다운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탓으로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땅을 치며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였고 살길을 찾아 낯설고 물설은 타향으로 뿔뿔이 헤쳐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민족의 넋과 정기에 재생의 활력을 부어주시며 참된 삶의 요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분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항일대전에서 승리하였고 이러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 인민은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웨치며 용감하게 싸워이겼다. 청소한 우리 나라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하고 민족의 자주권과 영예를 수호할수 있은것도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수령님의 두리에 뭉쳐 항일혁명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영웅적으로 싸웠기때문이다.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제도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목숨바쳐 지켜 싸우려는 열렬한 조국애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떨치게 한 혁명정신이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가 없이는 자기 조국을 목숨바쳐 지킬수 없다.

우리 인민은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고향산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의 한치의 땅을 위해 둘도 없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열렬한 애국심, 우리의 신성한 조국을 침범한 침략자들과는 목숨걸고 싸워이겨야 한다는 투철한 계급적자각을 안고 조국보위성전에 떨쳐나섰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또한 우리 인민이 창조한 천리마의 혁명정신의 원천이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우리 인민이 지니였던 혁명정신은 수령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의 의도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는 끝없는 충실성의 정신, 혁명의 길에 부닥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자체로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하루빨리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려는 애국의 정신이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났지만 전쟁의 피해는 혹심하였다. 전쟁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 도시와 농촌이 완전히 파괴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천리마의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에로의 비약의 길에 들어섰다.

천리마의 혁명정신은 전후 빈터우에서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우리나라를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우게 한 위대한 혁명정신이다.

천리마의 혁명정신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수령결사옹위정신이였다.

천리마대고조시기 우리 인민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운명을 위대한 수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는것을 최상의 임무로, 혁명적본분으로 여기고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지시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결사관철하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복구건설투쟁에 과감히 떨쳐일어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웠다.

전후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은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순간의 답보와 침체를 모르며 소극과 보수를 불사르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면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천리마시대사람들의 정신세계와 투쟁본때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정녕 백두의 혁명정신에 바탕을 둔 천리마의 혁명정신은 우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우리 인민의 기상과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게 한 위대한 혁명정신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낳게 한 불멸의 혁명정신이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또한 사회주의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을 힘있게 떠밀어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이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로 자랑떨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는 불패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갔기때문이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벌리는 과정에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불패의것으로 다졌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을 결사옹위해나갔다.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에 매혹된 우리 인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해나가시는 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한사람같이 일떠섰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고 그것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는 과정은 곧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이 불패의것으로 다져지는 과정이였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은 적들의 그 어떤 도전과 봉쇄도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였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시련과 난관은 전례없는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혁명정신을 계승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은 그 어떤 고난도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맞받아나가는 결사의 정신이며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에 기초한 필승의 정신이다. 이런 정신을 지니였기에 우리 인민은 조국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밀고나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나갔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도 간고하였지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도 그만 못지 않게 어려운 투쟁이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고난과 시련을 헤치면서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았다.

세상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적인 현실을 낳은 힘은 바로 항일의 민족자존의 정신을 계승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에 있다.

우리 인민은 혁명적신념으로 수령이 맡겨주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도 무조건 수행하였으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 슬기와 용맹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을 낳았다. 우리 인민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혁명적락관주의를 가지고 모진 시련과 난관을 뚫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나갔다.

참으로 백두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을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장엄한 새 력사를 펼쳐나갈수 있었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총진군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심장마다에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넋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강원도정신을 비롯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정신들이 창조창출되여 우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높이 떨치는 기적과 위훈이 날에날마다 발휘되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사람들을 견결한 투사,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지닌 애국자로 키우

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전체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살며 투쟁할 때 항일의 선렬들이 발휘하였던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그대로 본받아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맞받아뚫고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면서 끊임없는 기적과 위훈을 이룩해나가는 강의한 정신력을 발휘해나갈수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에 시원을 둔 우리 인민의 강의한 민족자존의 정신력, 민족적자존심을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니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이 지니게 되는 민족적자존심의 근본원천으로 되는것이다.

3. 결 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백두밀림에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정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다져놓으신 민족자존의 정신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천백배로 다져지고 더욱 높이 분출되고있다.

혁명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지고 세대는 바뀌였지만 백두의 혁명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다져주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떠밀어나가는 사상정신적재부로 되고있다.

오늘 전체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주체조선의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야말로 만대에 길이 빛날 우리 인민의 가장 값높은 정신적재부이며 우리 인민의 강의한 민족적자존심의 억센 뿌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민족자존의 정신력의 근본원천, 영원한 조선의 정신이다.

실마리어 백두의 혁명정신, 민족적자존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과학과 교육은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박사 부교수 손 영 남

1. 서 론

지금 나라들사이의 국력경쟁은 과학기술경쟁, 그를 안받침하는 교육경쟁, 인재경쟁으로 되고있으며 그 치렬성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방불케 하고있다. 발전된 나라일수록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전략과 정책들을 세우고있으며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 세기에는 국력경쟁이 군사력과 경제력이 위주로 되였다면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국력경쟁은 세계적규모에서 과학기술경쟁, 인재경쟁의 형태를 띠고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새로운 과학연구분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며 첨단기술개발사업들이 눈부시게 진행되고있으며 부문별, 지역별 및 세계적인 규모에서 과학기술교류가 지난 세기와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의 범위와 규모로 진행되고있다.

지식경제시대의 전렬에 서기 위한 나라들사이의 국력경쟁은 본질상 과학기술경쟁, 교육경쟁으로 된다. 과학기술수준과 교육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력수준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결국 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달라진다.

지금 세계에는 과학기술과 교육에서 앞섰다고 제노라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으며 첨단기술개발과 경계과학개척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과 교육수준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된다고 자랑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오늘의 국력경쟁의 실태는 과학과 교육이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 론문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사상에 기초하여 과학과 교육은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과학리론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학과 교육은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국력은 국제관계에서 자기 나라의 리익을 옹호고수하고 확대발전시키며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가 발휘할수 있는 정치사상적힘과 물질기술적힘의 총체라고 말할수 있다.

과학은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과학이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력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와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속도와 높이가 규정되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지난 시기에는 로력자원과 물적자원이 사회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전략적자원으로 간주되여왔으며 과학기술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오늘날에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국력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되고있다.

자연자원은 리용과정에 점차 고갈된다. 지난 시기 장기간에 걸쳐 자연자원을 개발리용한 결과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이 점점 고갈됨으로써 오늘날에 와서 세계는 자원위기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하고있다. 한편 자연자원의 대량적인 소비로 하여 온실효과가스배출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문제가 국가들의 장래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이러한 자원위기와 환경오염을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이며 항구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전망을 열어주는 관건적고리로 되는것이 바로 지식자원이다.

지식자원은 소모되는 일시적인 자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수명이 끝나는 자원과는 달리 인류가 항구적으로 쓸수 있는 영원한 자원이며 쓰면 쓸수록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자원이다. 지식자원의 급격한 증대로 지난날 버림받던 폐설물이나 페기품의 회수리용기술과 재생가능한 자원리용기술이 개발되여 인간이 리용할수 있는 자원의 량이 늘어나고 이전에는 리용가치가 적은것으로 하여 관심밖에 있던 자원이 긴요한 자원으로 되고있으며 과학기술에 의거한 환경보호산업이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높아지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과학기술발전계획과 전략, 인재중시전략실현에 힘을 넣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오늘날 현대과학기술의 안받침이 없이는 그 어느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고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적생활을 누릴수 없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지면 자연히 사회발전의 모든 분야에서 뒤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권을 철저히 지킬수 없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이 강해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에네르기와 원료,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나라의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며 인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쳐 자립적이고 현대적인 지식경제를 일떠세우며 전체 인민에게 높은 물질문화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수 있다.

이 모든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라는것을 말해주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과학은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는것이다.

과학이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오늘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가고있는것과도 관련된다.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경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경제의 지속적발전을 담보하고 발전된 나라들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며 국력을 강화하는 방도

를 과학기술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강화에서 찾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난 세기에 세계가 발전된 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로 갈라져있었지만 새 세기에는 과학기술적면에서 《빠른 나라》들과 《느린 나라》들로 갈라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첨단기술발전의 기본흐름에 뛰여들어 국제적인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을 벌리고있으며 쌍무적 및 다무적인 국제적협조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있다.

과학기술에서 앞서나간다고 하는 나라들은 자기들의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첨단기술이전을 막아보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고있다.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에도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프로그람의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는것은 경제무역부문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특정한 자본주의나라들의 무슨 금지협정이니, 통제제도니 하는것들은 다른 나라들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강화하지 못하게 하여 여전히 독점적지위를 유지해보려는 술책이다.

오늘날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은 지난 세기와는 비할바없이 커가고있다.

지난 시기 자원집약형이거나 로력집약형의 전통경제와는 달리 지식이 경제의 기본자원으로 되고있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국가경제의 발전은 과학기술에 더욱더 의존하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의 덕택으로 생산장성은 물론이고 나라의 전반적경제관리나 국가방위력, 일상생활이 과학기술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오늘 생산이자 기술이고 경제이자 과학이며 군사력이자 과학기술력으로 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이 높은 경지에 올라서고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압살책동속에서도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주체화, 현대화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신되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 장엄한 현실은 과학기술이 사회발전에서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하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과학기술경쟁이 국력경쟁으로 되고 사회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주도적역할을 하는것으로 하여 오늘 과학은 나라의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된다.

교육은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교육이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서 사회발전과 민족의 번영의 기초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사회의 발전은 사람의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사람들을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발전된 존재로 키우는 사업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는데 따라서 사회의 발전이 촉진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인재에 의해서 사회발전의 속도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이러한 인재는 결코 저절로 마련되는것이 아니다. 인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교육의 산아이다. 교육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과 기술로 조국을 빛내이고 혁명의 전진발전을 앞장에서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게 된다.

교육을 떠난 과학기술인재를 생각할수 없듯이 교육의 발전을 떠난 혁명의 전진을 론의할수 없다. 교육의 질적높이가 인재들의 자질을 결정하며 교육의 발전속도이자 나라와

민족의 발전속도이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장구한 투쟁과정에서 실천적으로 증명되였다.

교육문제는 특히 지난날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새 사회건설의 길에 들어선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들을 저들에게 철저히 종속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해당 나라의 인재들이 자라나는것을 억제한다. 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기반에서 해방된 나라들에서는 인재부족현상이 일어나 새 사회건설에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게 된다. 과학인재, 기술인재가 있어야 나라의 정치도 펴나갈수 있고 멎어있는 공장도 돌릴수 있으며 나라의 방위력도 강화하고 나라의 문명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화발전시킬수 있다.

식민지통치후과를 청산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자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각 분야에서 수요되는 인재를 먼저 육성하여야 하며 그래야 사회전반을 발전시킬수 있다.

해방후 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낳은 수백만 문맹자들의 눈을 틔워주기 위한 문맹퇴치운동으로부터 교육혁명의 첫걸음을 뗀 우리 나라는 짧은 기간에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오늘은 지식경제시대를 떠메고나갈 재능있는 인재, 주체의 강국건설의 능력있는 역군들을 훌륭히 키워내는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에로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처럼 교육, 인재육성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기초로 되는것으로 하여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된다.

3. 결 론

과학과 교육이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된다는 사상은 지식경제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가장 과학적이며 정당한 사상이다.

과학과 교육의 발전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세계적인 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며 새로운 과학기술개발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의의가 큰 핵심기술연구에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고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제도적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우리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국력경쟁, 교육, 과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학 제65권 제2호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

박사 부교수 김 기 철

1. 서론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으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한 리론적연구는 지난 시기 일정하게 진행되여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어떤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실현해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난 시기 독자적으로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은 3대혁명이다.

지난 시기 주체사상이 밝힌 3대혁명에 대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진행되였는데 그 연구들은 주로 3대혁명이 사회주의건설의 근본방도라는것을 해설론증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도서《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87(1998).) 제6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의 중요내용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도서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력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우는것과 함께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의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면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단편적으로 간단히 언급하였다.

소론문《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백승의 기치》(《**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5(2016).)에서는 3대혁명이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끊임없이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며 온갖 도전과 만난시련을 박차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압도하고 타승할수 있게 하기때문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백승의 기치라고 해설하였다.

우에서 언급한것처럼 3대혁명에 대한 지난 시기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계속혁명의 내용의 견지에서 진행되였다.

본 론문에서는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으로 된다는것을 3대혁명이 계속혁명의 과업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내용을 전개하고있다.

2. 본 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에 대한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방식을 옳바로 규정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식을 옳바로 규정하지 못하게 되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원만히 실현될수 없고 사회주의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것은 물론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을 옳바른 방식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경제건설만 내밀면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간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원칙을 견지하지 못하였다. 결과 이 나라들에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의 실현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것은 물론 종당에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무너지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초래되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의 기본방식에 관한 문제는 단순한 리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운명과 사회주의제도의 운명과 직결되여있는 중대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의 기본방식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완벽하게 해명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기본방식이라고 밝혔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수행해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고 하여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데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의연히 계속된다.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으로 태여난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국가

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새 사회인 동시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저애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가지고있는 사회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무엇에도 예속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완전히 실현하려면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도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할 때 그것은 사회주의정권이 수립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확립됨으로써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사회의 골격이 형성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내외의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에 저애를 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철저히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더욱 원만히 실현하자면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근로자들을 자연의 구속과 낡은 사상,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여야 하며 이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사상혁명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 사회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심각한 변혁이라면 기술혁명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인민대중을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사회적평등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문화혁명은 사람들을 낡은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문화를 창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3대혁명을 통하여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은 물론 물질문화생활의 령역에서까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에 저애를 주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철저히 청산되게 되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원만히 보장되게 된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경제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준동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높여나가도록 한다.

이처럼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속혁명인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의 기본방식으로 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야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으며 인간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생활을 이룩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의 장애로 되는 모든 예속과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자면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는 투쟁은 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사람은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예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해방되여야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 그러므로 3대개조사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심과업이며 그 승리를 담보하는 기본열쇠이다.

사회주의사회가 수립되기 이전시기에는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회개조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자본주의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으로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됨으로써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고 억누르는 온갖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청산되며 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자주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사람들을 자연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자연개조, 인간개조문제가 보다 전면에 나서게 된다.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자연개조사업과 인간개조사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수행되며 사회개조사업은 혁명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3대혁명은 개인주의에 기초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철저히 청산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며 사회성원들사이의 동지적단결과 협조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 육체로동과 정신로동과의 차이, 기술적락후성,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 등에서 표현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연과 낡은 사상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높은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그 어떤 차이도 없이 평등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며 이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집단주의적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한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하여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사업이 전면적으로 다그쳐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기본방식이라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오늘의 현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 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군사적위협과 사상문화적침투책동, 경제적봉쇄책동을 짓부셔버릴수 있는 최상의 방도도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데 있으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워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길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데 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서고 경제강국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3대혁명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가장 철저히 담보하여주는 사회주의사회의 혁명방식,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의 기본방식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3. 결 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가장 훌륭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기본방식이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실현의 기본방식으로 될수 있은 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끝까지 수행할데 대한 계속혁명사상을 제시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온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혁명방식, 3대혁명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자력갱생은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원칙

김 정 철

1. 서 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면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자면 세계 진보적나라들이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국제적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시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 세계 진보적나라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올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사상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힘있게 론증하는것은 세계 진보적나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난 시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에 관한 사상리론들 특히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투쟁원칙을 구현할데 대한 사상리론들을 해설론증하는 글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대표적으로 도서《**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제13권과 소론문《진보적나라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는것은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오기 위한 중요한 요구》, 소론문《현시기 세계자주화에서 나서는 주요문제》를 들수 있다.

도서《**김일성-김정일**주의총서》(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106(2017).) 제13권에서는 온 세계자주화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화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는것을 해설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자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해설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자강력제일주의, 자력갱생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일떠세우는 원동력이며 경제적자립을 이룩해나가는 전과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투쟁방식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경제적자립을 이룩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체의 민족간부, 과학기술인재부대를 마련하는것이다.

소론문《진보적나라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는것은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오기 위한 중요한 요구》(《**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7(2018).)에서는 온 세계를 자주화하자면 세계 진보적나라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는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사상에 기초하여 진보적나라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는것이 세계자주화를 앞당겨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 근거를 두가지로 들었다.

그에 의하면 진보적나라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것이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첫째로,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의 진보적나라들에 있어서 강력한 국력을 갖추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길이기때문이며 둘째로,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자기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실제적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소론문《현시기 세계자주화에서 나서는 주요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6(2017).)에서는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시대적과제라는것을 제기하고 그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주요문제들을 해설론증하였다.

론문에서는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밝히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하여 해설하였으며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주타격대상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과업과 방도를 밝히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그를 제기하고 해설하였다. 론문에서는 특히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해설론증하였다. 이 부분의 내용을 분석하여보면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이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열쇠라는것과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문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문제 등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설론증하였다.

이처럼 우의 론문들에서는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자력갱생과 결부하여 제기하고 해설론증하였다.

그러나 우의 론문들에서는 자력갱생이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적나라들의 투쟁원칙으로 된다는것을 독자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해설론증하지 못하였다.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주체인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과 함께 주체적힘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이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론문들에서는 자력갱생을 경제적자립을 이룩해나가는 측면에서만 론의하였으며 자력갱생이 강력한 국력 특히 국방력과 경제력을 마련하고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본 론문에서는 앞선 연구성과들에 기초하여 자력갱생이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중요원칙으로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자력갱생이 왜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중요원칙으로 되는가 하는 근거를 매개 나라의 주체적력량의 강화와 국제적 정의실현의 중요성의 측면에서 해설론증하였다.

2. 본론

오늘 국제정세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적대세력들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나라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와야 합니다.》

지배와 예속, 착취와 억압이 없는 자주화된 세계에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세계진보적인류의 념원이다.

오늘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시대적과제이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상대로 하여 그를 영원히 청산하기 위한 치렬한 반제계급투쟁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이 동원되여 수행해야 할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그 주체인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력갱생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원칙으로 나서고있다.

자력갱생이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자기 나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기때문이다.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떠난 세계자주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잘하는것은 그자체가 국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세계자주화를 촉진하는것으로 된다. 매개 나라 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있으며 개별적나라들의 혁명승리를 통하여 세계자주화가 실현된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은 민족적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는것으로 되는 동시에 세계혁명의 한 고리를 강화하고 세계자주화실현에 이바지하는것으로 된다.

세계무대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나 민족이 대신 실현해줄수 없다.

독립국가의 창설로부터 국가사회제도수립문제, 령토와 주민에 대한 관할권의 완전행사와 부강한 국가건설문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는 문제, 외세의 온갖 간섭과 압력을 물리치는 문제를 비롯한 방대한 문제들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당 나라와 민족이 아닌 그 어떤 외부세력이 해결해줄수는 없다. 외부세력에게는 다른 나라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도 능력도 없다. 력사에 아직 그러한 전례도 없다. 이것은 외세가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사실이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매개 나라 혁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이며 매개 나라 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그 나라 인민자체의 힘이다.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그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 이래라저래라하고 처방을 내릴수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하여줄수도 없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주인된 자기 나라 인민들자신이 자기 머리를 써야 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며 혁명의 리익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자기 나라 혁명은 오직 자체의 힘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 혁명은 어

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철저한 자력갱생의 혁명적립장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자기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체의 결심과 판단,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수행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이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의 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수행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정치적력량,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에 의거하여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는데서 기본은 자체의 튼튼한 정치적력량을 꾸리는것이다.

자기 나라 혁명의 승리를 마련하고 세계자주화실현에 이바지하자면 모든 면에서 자체의 력량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적력량,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사회주의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의 근본담보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전체 성원들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의 단결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단결로, 일심단결로 되여야 한다.

혁명에서 단결을 이룩하자면 사람들속에서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그들이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며 각계각층 군중을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주체적력량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자체의 경제적, 군사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와 민족은 세계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기는 고사하고 자기 나라 혁명도 제대로 수행해나갈수 없다. 제국주의자들이 자본주의경제의 《우월성》을 요란스럽게 광고하고 비렬하고 광란적인 제재와 봉쇄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는 조건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는것은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력한 국가경제력과 함께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에도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자체의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자면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에서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 세계적으로 치렬한 과학기술경쟁이 벌어지는 오늘의 조건에서 자기 인민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하여 과학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매개 나라와 민족은 자체의 주체적력량, 정치적력량, 경제적력량, 군사적력량을 강화해나가야만 그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으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할수 있다.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해야만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당의 투쟁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에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묶어세워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는 그들모두를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줌으로써 사회주의를 가장 공고하고 폭넓은 사회정치적지반우에 올려세우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비길데 없는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하였다.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나 할것없이 언제나 전체 인민을 하나의 단합된 정치적력량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는것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요구로 내세우고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부터 푼전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굴의 투쟁을 벌려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유력한 경제적, 군사적토대를 쌓았다. 오늘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근본리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나가고있는것은 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을 건설해놓았기때문이다.

이처럼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수행하려는 철저한 혁명적립장인 자력갱생은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원칙으로 된다.

자력갱생이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현시기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이기때문이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시대가 제기하는 력사적과업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공동의 의무이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는 자주적요구와 민주주의, 공정성이 철저히 구현되는 국제관계와 질서이다.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서는 세계자주화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수는 없는것이다.

하지만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원칙들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의도 부정의로 범죄시되고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묵인되고있다.

국제무대에서는 일부 나라들의 특권과 전횡이 판을 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이 공공연히 유린당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와 민족의 내정에 간섭하고 부당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현상들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바로 지난 세기의 불공평한 낡은 국제질서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되고있는데 있다.

현 국제질서는 발전된 나라들과 일부 특정국가들에만 우선권과 결정권이 부여되여있고 발전도상나라들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의사는 무시되는 질서, 지배와 략탈의 질서이다. 이것은 시대의 전진운동에 저해를 주는 장애물로 되고있으며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

을 유린하는 기본요소로 되고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며 발전할것을 바라는 세계진보적인류의 공동의 요구이다. 세계도처에서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으며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유엔무대에서 사회경제발전을 억제하고 국가들사이에 불평등과 갈등만을 조장격화시키는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자주화된 새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바로 이러한 낡고 불평등한 국제질서를 새롭고 공정한 국제질서로 바꿀 때에만 실현될수 있다.

국제적정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힘, 국력을 강화할 때에만 이루어지게 된다.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힘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강력한 국력이다.

적대세력들이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지배하려고 날뛰고있는 오늘 그 어떤 리론이나 구걸로 자기를 지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망상이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국제무대에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강자들의 롱락물로 되며 정의와 량심도 지켜낼수 없게 된다. 진보적인 나라와 민족들이 적대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오직 자체의 강력한 힘, 국력을 키우는것이다.

자기의 힘, 국력은 그 누구의 선사품도 아니며 저절로 생기는것도 아니다. 오직 자력갱생으로 국력을 강화할 때에만 마련될수 있고 더욱 증대시켜나갈수 있다.

자력갱생하여 키운 자기의 힘, 제손으로 하나하나 쌓아올리고 굳건히 다져놓은 국력은 모든 진보적나라와 민족들이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기 나라 혁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국제무대에서 공정한 질서를 세울수 있게 하는 강위력하고도 유일한 담보이다.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의 힘을 키워야 남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자력갱생하여 자체로 국력을 마련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어 어부지리를 얻겠다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나라나 민족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은 커녕 그 나라가 하자는 대로 비굴하게 놀아대며 예속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의 자주권마저 유린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남의것을 가져다 갖춘 국력은 영원한 자기의 힘으로 될수도 없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나라들이 외세의 교활하고 리기적인 요구에 장단을 치면서 무엇인가를 해놓았다고 춤을 추었지만 그들에게 차례진것은 결국 강탈과 빈궁뿐이고 가닿은 종착점은 노예적굴종과 예속뿐이였다.

자력갱생으로 자기의 힘을 키워나가는 나라는 사대가 발붙일 곳이 없으며 자력갱생으로 다져진 국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외세의 그 어떤 압력과 전횡에도 끄떡없이 국제무대에서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히 시위하면서 국제적정의를 위하여 과감히 투쟁해나가게 된다.

지나온 력사는 고난과 시련앞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 자체의 강력한 국력을 다지고다져온 나라와 민족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힘있게 떨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와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수놓아진 망국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나라로 일떠선 우리 조국은 자력갱생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였으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주체의 궤도를 따라 곧바로 힘있게 달려왔다. 전대미문의 난관과 시련속에서 참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헤치며 자력갱생의 무한대한 힘을 축적한 우리 인민은 오늘 자주적근위병의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

자주정치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고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우리 나라의 긍지높은 현실은 바로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다져온 강력한 국력만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수 있으며 정의와 진리도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의가 승리하는것은 력사의 필연이다. 이 력사의 필연을 앞당겨오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수호의 강력한 힘을 키우는가 못 키우는가 하는데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처럼 세계자주화가 국제적정의를 위한 투쟁인것으로 하여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인 자력갱생은 세계자주화를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투쟁원칙으로 된다.

3. 결 론

오늘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압력을 단호히 쳐갈기며 자주의 한길, 자력갱생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보루,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다.

우리 혁명의 전력사를 쥐여짜면 자력갱생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자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는 나날에 우리 인민은 전대미문의 시련과 난관을 겪었지만 수천년민족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모든 영광을 맞이하였다. 우리가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력의 원칙을 포기하였더라면 주체의 사회주의는 지구상에 태여나지도 못하였을것이며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함께 우리의 국호도 빛을 잃었을것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인민이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자기 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드높은 민족적자존심을 높이 발휘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주체적힘을 백방으로 다져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수 있다.

시간과 정의는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인민의 편에 있다.

낡은 국제질서를 마사버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의의 위업에 떨쳐나선 세계진보적인류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증대시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진보적인류는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더욱 증대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자력갱생, 세계자주화, 중요원칙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

박사 부교수 **양 성 철**

1. 서 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을 원리적으로 옳게 인식하는것은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쳐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을 옳게 인식하여야 그것을 지침으로 삼고 우리 식 사회주의문명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조국을 전체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킬수 있다.

지난 시기 여러 참고서와 소론문들에서는 사회주의문명건설과 관련하여 많이 론의되였다.

도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조선로동당출판사, 주체105(2016).)에서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면서 문명국의 본질적면모,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원칙적요구,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위한 과업과 기본방도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특히 도서의 2장 《사회주의문명국의 본질적면모》에서는 문명국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나라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서 서술되고있는 내용들은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을 어떻게 전개할것인가 하는데 귀중한 실마리를 주었다.

그러나 이 도서에서는 문명국의 본질적면모에 대하여서만 해설하였지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소론문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기본》(《철학연구》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4(2015).)에서는 인민대중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 사회주의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을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중요내용으로 하고있다는것을 해설론증하였다.

소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사상》(《정치법률연구》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102(2013).)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회주의문명건설사상은 사회주의강국에서 살게 될 전체 인민을 정신육체적으로, 문화도덕적으로 준비된 힘있는 존재로 준비시키며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문화생활분야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풍부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가장 훌륭한 물질적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것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였다.

소론문들에 서술된 내용들은 이 론문에서 사회주의문명건설이 전체 인민을 높은 창

조력과 문화지식을 지닌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론증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론문은 선행연구성과들을 참작하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올해 신년사와 여러 로작에서 밝혀주신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혁명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오늘 강력한 경제건설과 함께 문명건설은 더없이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화발전이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에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전체 인민을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2.1. 전체 인민을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전체 인민을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제일 중시해야 할 사업이다.

문명한 생활을 요구하는것도 사람이고 문명한 생활을 발전시켜나가는 직접적담당자도 다름아닌 사람, 인민대중이다. 문명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였다고 하여도 그 주체인 인민대중자신이 문명한 인간으로 준비되지 않고서는 언제 가도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없다.

사람들의 문명정도는 그들이 지닌 창조력과 문화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체 인민을 문명한 인간으로 키운다는것은 그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닌 힘있는 존재,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인간으로 키운다는것이다.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은 사람의 창조력에서 기본을 이룬다.

사람이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힘있는 존재로 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의 운동법칙을 알아야 하며 이 법칙에 의거하여 세계를 개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밝힌것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다.

과학은 인간이 대를 이어가면서 사회적으로 창조하고 력사적으로 축적한 지식의 체계이다. 인간은 과학지식을 가지고 그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문명하고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릴수 있다.

인간의 문명수준은 곧 과학지식수준이다. 고상한 도덕품성과 풍만한 정서도 높은 과학지식과 결합될 때에만 더욱 공고해진다. 사람은 과학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정신문화적재부들과 문명한 생활조건, 환경을 더욱 훌륭하게 창조하고 향유하면서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된다.

과학기술은 오늘 나라와 민족을 문명화하고 그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이 주로 그가 지니고있는 과학기술지식수준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문명정도와 위력도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하였는가 하는데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과학기술이 발전되여야 국력이 강화되고 나라가 문명해지며 민족이 륭성번영하게 된다.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공업경제시대에는 물질적부가 로동자들의 힘든 육체로동에 의하여 창조되였다면 지식경제시대에는 그것이 지능로동에 의하여 창조된다. 오늘 많은 물질적재부들이 정보설비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조건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인재를 많이 가진 나라가 경제적으로 빨리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경제강국을 건설하자고 하여도 그렇고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자고 하여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키워내야 하며 전체 인민이 높은 과학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문명화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근로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바로 사회주의문명건설이다.

건강한 체력은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의 육체적담보이다.

사람이 건강하고 튼튼한 체력을 가지지 못하면 창조적활동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될수 없다. 사람의 모든 활동은 체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의 육체적활동은 더 말할것도 없고 정신활동도 건강한 체력에 의하여 담보될 때에만 원만한것으로 될수 있다.

간고하고 어려운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자면 높은 혁명정신과 함께 튼튼한 육체적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상한 혁명정신도 튼튼한 육체적준비에 의하여 안받침될 때 혁명실천에서 빛을 낼수 있다.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되였다 하더라도 육체가 따라서지 못하면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는 강의한 정신력도,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해나가는 비상한 정력과 지혜도 건강한 체력에 바탕을 두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건강한 체력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기본표징의 하나로, 문명한 인간의 면모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사람들의 문명수준은 도덕품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도덕품성을 지닌 정도는 사람의 문명정도를 재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도덕품성은 도덕규범이 체질화, 습성화되여 사람의 고유한 내적인 특성으로 전환된것이다. 도덕품성은 도덕규범을 원리적으로 인식할뿐아니라 그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질화하고 습성화할 때 형성되게 된다.

가장 고상한 도덕품성은 사회주의도덕품성이다. 사회주의도덕품성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를 반영한 도덕품성으로서 가장 정의롭고 인민적이며 헌신적인 도덕품성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고상한 사회주의도덕품성의 중요내용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온갖 부당한 행위를 증오하고 모든 문제를 편견과 사심이 없이 공정하게 대할줄 아는것이며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하여 진심으로 복무하는것이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전체 인민이 고상한 도덕품성, 사회주의도덕품성을 지닌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전체 인민이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게 된다는것은 그들이 다 높은 도덕의리의 소유자로 됨으로써 사회생활전반에 사회주의도덕기풍이 차넘치게 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이 동지를 사랑하고 혁명선배를 존대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을 체질화, 습성화함으로써 온 사회에 동지적단결과 협조,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숭고한 인간관계가 꽃펴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은 사회주의도덕품성을 지니고 사회주의도덕을 최고의 경지에서 준수하게 되며 사회생활전반에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주의도덕이 차넘치게 된다.

높은 문화적소양은 문명한 인간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풍모의 하나이다.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옳은 태도를 가지고 생활을 아름답고 고상하며 락천적이고 다정다감하게 할줄 아는 사람이 문화적소양이 높은 사람이다.

참된 혁명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체현하고있는 다정다감한 인간이다. 높은 문화적소양과 풍부한 정서는 혁명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함께 혁명가의 중요한 풍모를 이룬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투쟁과 생활은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는것이 혁명가의 삶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비관과 동요를 모르고 언제나 신심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전체 인민을 다방면적이고 풍부한 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지닌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시대 문명한 인간육성의 가장 옳바른 길이 열리게 되였다.

2.2.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전체 인민을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일뿐아니라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은 사회의 문명정도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다.

사람들의 생활은 일정한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된다. 생활은 사람들이 자주적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일정한 대상을 리용하는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경제생활이 물질적수단을 리용하여 진행된다면 문화생활은 여러가지 문화시설들과 수단을 리용하는 과정에 이루어진다.

주위환경과 조건이 인간생활에 주는 영향은 매우 크다. 환경과 조건이 아름답고 문화적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즐겁고 유쾌한것으로 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사람들은 문명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수록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되며 삶과 투쟁의 보람과 긍지를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물질적조건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이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문화생활과 로동생활, 물질생활 등 모든 생활을 문화적으로 문명하게 하는데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이 포함되게 된다.

해당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은 그 생활의 발전수준을 평가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교육의 물질적토대는 교육의 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상태는 보건사업의 발전수준을 특징짓는 요인의 하나로 된다. 체육사업이나 문학예술도 해당 부문의 물질적조건이 어느 정도 현대적으로 갖추어지는가에 따라 그 발전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물질적조건과 수단들이 현대적으로 훌륭하게 갖추어지면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질뿐아니라 생활이 더욱더 문화적이고 윤택한 생활로 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교육발전에 필요한 현대적인 물질적조건들과 수단들이 훌륭히 갖추어지게 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모든 학교와 대학들의 면모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게 된다. 대학과 학교들에서 교육시설과 실험실습기재, 체육기자재들이 현대화되고 모든 교실들이 다기능화된 교실로 전환되게 된다. 이와 함께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과외교육교양거점들과 과외생활기지들이 새 세기의 높이에서 훌륭하게 꾸려지게 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보건사업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도 훌륭히 마련되게 된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춘 전문병원들이 많이 건설되고 제약공장과 의료기구공장들이 현대화되여 효능높은 의약품과 첨단의료설비, 기구, 의료용소모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게 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체육부문의 물질적조건을 훌륭히 갖추기 위한 현대적인 체육시설들을 많이 건설하게 된다. 평양시와 지방들에 체육관과 경기장, 수영관, 사격관, 육체훈련관이 현대적으로 건설되며 곳곳에 체육공원이 꾸려져 온 나라가 체육시설망으로 뒤덮이게 된다. 체육기자재생산기지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지고 체육기재의 품종이 늘어나며 그 질이 높아져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이 널리 리용하게 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조건들이 더욱 훌륭하게 갖추어지게 된다.

사회주의문명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서게 된다.

문화체육시설들과 편의봉사시설들, 공원, 유원지, 명승지들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현대적으로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잘 꾸려져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인민사랑에 의하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대상들이 현대화되고 새로 건설되였다. 인민들을 위한 대중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며 랑만과 희열에 넘쳐 마음껏 문화정서생활을 즐기고있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문명하게 할수 있는 물질적조건들과 수단들도 훌륭히 마련되게 된다.

물질생활은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생활이다. 물질생활을 문명하게 할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한다는것은 결국 식생활과 옷차림을 민족적특성에 맞으면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적으로 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것이며 거리와 마을을 비롯한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잘 꾸린다는것이다.

우선 식생활의 문화수준을 높일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되게 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은 사람들의 식생활수준에서도 나타나야 하며 그러자면 식량과 부식물, 기초식품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식생활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음식의 가지수가 늘어나 인민들의 식생활양식이 개선되며 식료가공기술과 료리기술이 빨리 발전하여 식생활문화가 바로서고 인민들이 맛있고 영양가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민족음식이 적극 장려되고 발전되며 지방별 특산음식과 인민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식들이 식생활에서 장려되고 더욱 발전하게 된다.

또한 옷차림과 몸단장을 문명하고 문화적으로 할수 있는 조건들도 마련되게 된다.

사람들의 옷차림과 몸단장은 그들의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이며 단정한 외모는 사람들의 인품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정서와 풍치를 돋구어준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사람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현대적미감이 나게 다양하게 해줄수 있는 물질적조건들이 원만히 갖추어짐으로써 사회주의적생활문화를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철저히 확립할수 있게 된다.

또한 거리와 마을을 비롯한 생활환경이 사회주의선경으로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려지게 된다.

거리와 마을을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려야 온 나라에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사람들이 언제나 명랑하고 문명하게 생활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평양시가 주체조선의 수도, 사회주의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전변되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게 된다.

또한 문명한 로동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물질적조건들도 훌륭히 갖추어지게 된다.

로동생활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로동생활을 문화위생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진행하는것은 생산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로동조건과 환경이 위생문화적인것으로 되여야 로동이 즐겁고 보람찬것으로 되며 사람들은

건강한 몸으로 질높은 재부를 더 많이 창조하게 된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로동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과 농촌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근로자들에게 더 좋은 로동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고계시며 사랑에 넘친 배려를 돌려주고계신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통하여 생산문화를 확립할데 대한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들이 일하는 공장과 일터들이 더욱 아름답게, 위생문화적으로 훌륭히 꾸려지게 되며 근로자들은 생산문화가 확립된 일터에서 문명한 로동생활을 하게 된다.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는 자연환경을 문명한 생활에 맞게 꾸리는것도 중요하다.

자연환경, 생태환경을 문명한 나라의 체모에 맞게 꾸리는것은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자연은 인간의 로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원천이다.

자연환경은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자연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것만큼 인간에게 유리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불리한 자연환경은 유리한것으로 변모시켜야 인간이 제대로 생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치산치수사업을 잘하여 산들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꾸며 바다와 강하천들에서 인민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즐기도록 조건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낳는 모든 산업시설물들과 폐설물들을 없앰으로써 사람들이 언제나 맑고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문명의 특성에 맞는 생활조건과 환경에 대한 완벽한 리해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론문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문명건설은 전체 인민을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닌 문명한 인간으로 키우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에 관한 사상은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는 길을 밝혀주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며 인류의 진보적문화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본질적내용에 관한 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우리 조국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명하고 발전된 나라,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사회주의문명건설, 교육, 보건, 체육, 도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철 학 제65권 제2호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

리 철 수

1. 서 론

사회관리방식문제에 대한 연구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화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회적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생활이 더욱더 세분화되여 사회관계가 다양해지는것과 관련된다.

지난 시기 사회관리방식문제에 대한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많이 론의되였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에 관한 문제가 초점으로 되여 많은 론문들에서 해설론증되였다.

이와 관련된 론문들로서는 소론문 《사회주의적사회관리체계와 방법확립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정치방식》, 《사상투쟁은 사회주의사회관리방식확립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방식의 본질적내용》, 《집단주의적방법은 사회주의사회관리의 근본방법》, 《사회주의적관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등을 들수 있다.

소론문 《사회주의적사회관리체계와 방법확립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 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3.)에서는 사회주의적사회관리체계와 방법확립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세가지로 들었다.

첫째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둘째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는것이다.

셋째로, 당활동과 국가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소론문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정치방식》(《**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87(1998).)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정치방식으로 되는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회관리체계와 방법이고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사회관리체계와 방법이기때문이라는것을 밝히고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이 확증하여주고있다는것을 해설하였다.

소론문 《사상투쟁은 사회주의사회관리방식확립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기본》(《**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5.)에서는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서 기본이 사상투쟁으로 되는것은 관료주의를 낳는 낡은

사상의 보수성, 집요성과 관련되며 사상투쟁이 관료주의를 낳는 사상을 뿌리빼고 교양개조하기 위력한 방법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소론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방식의 본질적내용》(《**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3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에서는 우리 식 사회주의정치방식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 하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보편적인 정치방식으로 하며 인덕정치를 전통적인 정치방식으로 하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소론문 《집단주의적방법은 사회주의사회관리의 근본방법》(《**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0(2011).)에서는 집단주의적방법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주의사회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방법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였다.

그에 의하면 집단주의적방법이 사회주의사회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본방법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이 방법이 인민대중의 자주적본성에 맞는 과학적인 방법이기때문이며 둘째로, 이 방법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특성에 맞는 혁명적인 방법이기때문이며 셋째로, 이 방법이 사회관리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방법이기때문이다.

소론문 《사회주의적관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88(1999).)에서는 사회주의적관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가 온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이고 당의 령도밑에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이며 로동계급의 당활동과 국가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것이라는것을 해설하였다.

그러나 소론문들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할데 대한 사상을 론증하는데서 매우 단편적이며 그 해설내용도 원리와 깊이가 부족한것이 결함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관리의 기본원리부분과 사회관리방법부분에서 단편적으로 한두문장 앉힌것으로 그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설론증한 글이 없다고 본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할데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체계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관리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립증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를 심화시키는데서 기초적인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창조하는것은 인민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경제제도에 의하여 모든것이 규정된다는 기성리론에 매달리면서 사회주의제도가 서기만 하면 국가와 사회를 관리해나가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수 있을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새롭게 창조하는 문제가 옳게 해결되지 못하였으며 낡은 사회의 관리방식의 잔재가 적지 않게 되살아나게 되였다. 결과 관료주의가 자라나 사람들의 창발성을 억제하고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파괴함으로써 나중에는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였다.

력사적교훈은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정권이 있어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운명도 담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할데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시고 그와 관련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사회관리리론연구에서 길이 빛날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본 론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의 확립에 관한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해설론증하였다.

2. 본 론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창조적활동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사회주의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이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주인이 되여 사회를 사회주의적본성에 맞게 관리하지 못하면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보장할수 없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86페지)

사회에 대한 관리는 일정한 관리방식에 의하여 실현되며 그 성과여부는 어떤 관리방식에 의거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관리방식에 의하여 사회관리에서의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담보된다.

사회관리방식은 류형에 따라서 크게 착취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으로 나눈다.

착취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이 독재와 폭력, 금권에 기초한다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집단주의와 민주주의,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관계에 기초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사회에 대한 관리에서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인민적인 사회관리방식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

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는데 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그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며 사회를 관리하는 주인이라는것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면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 사회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조건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인민대중이 저절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 사회관리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면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관리가 인민대중의 리해관계와 요구에 맞게 실현되여야 한다. 자본주의제도가 붕괴되고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여 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 사회관리의 주인으로 될수 있는 사회적조건이 마련되였다 하더라도 사회관리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하지 않으면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

사회관리가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는것으로, 인민대중자신의것으로 되여야 모든 사람들이 사회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자기의 창조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본질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를 관리운영하는데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관리방식이다.

사회관리의 중심에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놓고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사업을 인민대중이 자신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그들자신의 힘으로 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관리에서 인민대중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철저히 보장하는 관리방식이라는데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의 본질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본성에 맞는 관리방식이 확립되면 사회주의건설에서 정치사업이 모든 사업에 선행되고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하면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된다. 뿐만아니라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이고 집행하며 광범한 대중을 국가관리와 사회정치생활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민들이 사회의 주인답게 사회관리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도록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은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데 있다.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은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에게 진정한 정치적자유와 권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주는데 복종된다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당과 국가의 옳바른 정책과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여준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당과 국가로 하여금 인민대중에게 값높은 정치생활을 보장하여준다.

정치생활은 사람의 사회생활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진다. 인민대중은 정치의 주인이 되여 참다운 정치생활을 하여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평등한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누구나 다 정당, 단체를 비롯한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혁명적인 조직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빛내여나가도록 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국가로 하여금 인민대중에게 평등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이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보장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관리방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언제 파산과 실업, 빈궁의 나락에 떨어질지 몰라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산다.

누구나 다 고르롭게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관리방식이 확립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이 확립됨으로써만 인민대중이 안정된 일자리와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받으며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행복한 로동생활과 문명한 물질생활을 고르롭게 누리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당과 국가로 하여금 인민대중에게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을 보장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갖추게 되며 다양한 문화정서적요구를 실현하게 된다.

반인민적인 사회관리방식에 의하여 온갖 퇴페적이고 썩어빠진 반동문화가 범람하고 사람들이 정신적불구자로 전락되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관리방식이 확립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당과 국가의 지도와 보살핌속에서 선진적인 사상문화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창조적능력을 지닌 참다운 사회적인간으로 준비되며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린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발전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은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라는데 있다.

사회의 발전능력은 사회관리방식의 우월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아무리 우월한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였다고 하여도 사회발전의 무한한 힘을 가지지 못하면 그러한 사회를 관리하는 사회관리방식은 그 우월성을 담보할수 없으며 그러한 사회는 파산과 붕괴를 면할수 없다.

사회의 발전은 주인인 사람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에 귀착된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능력을 가진 사회인가 그렇지 못한 사회인가 하는것은 그 사회를 관리하는 사회관리방식이 사람의 본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단결과 협력의 사회관계속에서 가장 높이 발양되는것만큼 사회의 발전능력은 결국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이 어떤 사상에 기초하여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가장 높은 발전능력을 가진 사회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 실현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통일단결을 이룩한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는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려는 낡고 반동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사람들사이의 관계가 모순과 대립, 불신과 호상견제로 일관되여있다.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무참히 짓밟히며 따라서 그 발전의 전도가 없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은 당과 국가로 하여금 자주적인 사상의식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사회주의사상으로 일색화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이루게 하며 사회주의사회를 가장 높은 발전능력을 가진 사회로 되게 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게 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사회관리방식의 우월성이 있으며 사회주의사회발전을 추동하는 정치사상적힘, 정신력의 무한대한 원천이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된 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을 확립하는것은 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정치생활과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사회주의사회의 발전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3. 결 론

본 론문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이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합법칙적요구로 된다는것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인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라는데 귀착시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명백히 밝혀주었다. 그러므로 여러 측면에서 발현되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킬수 있는 여지도 있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오직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회관리방식만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불평등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평등,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관리방식을 더욱 굳건히 확립하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는 길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상을 실현하는 길이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이 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 사회관리방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주체108(2019)년 제65권 제2호
철학 (루계 제548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인쇄소 **김일성**종합대학인쇄공장
인쇄 주체108(2019)년 10월 20일 발행 주체108(2019)년 10월 30일

ㄱ－195239 값 200원

Address: Ryongnam-dong, Ryomyong Street,
Taesong District, Pyongyang
E-mail: ryongnamsan@star-co.net.kp
Fax: 0085-02-381-4410, 0085-02-381-4427

정기간행물번호
제19923호